

목 차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1.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3
2.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17
3. 사본들의 99%가 킹제임스 성경 지지	54
4. 시내 사본의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2구절 조작	59
5. 한국 장로교계의 킹제임스 성경 지지 도서 및 성경 연구 자료	61
6. 용어 정리	68
7. 추천 참고 도서	73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이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이 책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의 진리가 널리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보존해 주시는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살롬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젯밤 대장간 문 옆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죠.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망치들이 보였습니다.
수 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 버린 낡은 망치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를 사용하셨죠?”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닳아 못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시오.”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루와 같구나! 수 세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말씀의 모루를 내리쳐 왔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건재하며
그 많던 망치들은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많은 분들이 왜 성경 신자들은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바른 성경이라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한다.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 성경 보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복잡한 주제들에 관해 논해야 하므로 우리는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대한 명쾌하고 단순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네 조상들이 세워 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잠22:28).

이 말씀에서 지계표(landmark)란 측량사가 사용하는 용어로서 보통은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어떤 물건을 뜻한다. 지계표 즉 랜드마크는 멀리서 보고 위치 파악에 도움이 될 만한 대형 건물 같은 것을 말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하는 표시를 뜻하기도 하며 항해자를 위해 사용되는 육상 경계를 가리키기도 한다. 측량에서 랜드마크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마음대로 랜드마크를 치우거나 변경하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불법이다.

기독교는 그 자체에 권위를 부여하고 믿음과 실행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한 가지 문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전서(The Holy Bible)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행하는 모든 것의 절대적이고도 최종적인 기초가 성경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라는 이 랜드마크가 확실한지 혹은 변경되지 않았는지 늘 신경 써야 한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을 믿으며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수용해 온 그리스어 본문과 히브리어 본문, 그리고 이것들에서 번역된 역본들만을 사용해 왔다. 이런 본문은 과거의 거의 모든 교회가 받아들였기에 보통 수용 본문(Received Text)이라 불리기도 하며 또 공통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의 공인(共認) 본문이라 불리기도 한다. 지난 20세기 동안 성경 신자들은 자기들 시대에 존재하던 그리스어/히브리어 사본들을 모았는데 이것들의 99%는 거의 모든 면에서 서로 일치한다. 이처럼 절대다수를 이루는 다수 사본들이 바로 이 공인 본문의 기초가 되었다.

1604년에 영국의 제임스 왕(제임스 1세)은 햄튼 코트 회의에서 제네바 성경, 비숍 성경 등 기존 성경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통 사람들의 손에 공통 성경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여러 사람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새로운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할 것을 허락하였고, 그 결과 1611년 5월 2일에 태어난 것이 바로 왕의 권위를 부여받은 킹제임스 성경이다. 제임스 왕은 영국 교회에서 50여 명의 당대 최고의 그리스어/히브리어 학자들을 선정하여 번역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들은 사도 시대부터 그 당시까지 성경대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거의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해 온

그리스어/히브리어 사본들과 거기에서 이미 번역된 여러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검토하여 새로운 성경을 번역하였다.

이들이 만들어 낸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반포된 이후로 지난 400년 동안 영어를 사용하는 모든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읽히며 가장 널리 보급된 보편적 성경이 되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 이전에도 공인 본문에 근거하여 번역된 여러 종류의 영어 성경이 존재하였고 또 성경 출간 빈도도 높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출간 이후로는 그밖에 다른 영어 성경의 번역 자체가 모두 자연스레 중단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읽은 독자들 사이에서 “이 성경은 왕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성경이다.”라는 확신이 널리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광고나 홍보도 없이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권위역 성경’(Authorized Version)으로 온 세상에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뻗어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오대양 육대주를 복음화시켰으며 그 이후에 나온 여러 나라의 수많은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되었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리들의 근간이 되었다.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며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 점에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톰슨대역 한영성경, 기독교지혜사, 부록 1, 4쪽, 1989).

사실 현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성경 전쟁의 실체는 다수 본문만을 수용해 온 기독교와 소수 본문만을 고집해 온 천주교의 대립이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의 대적자 마귀가 있다면 마귀는 당연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서고 쓰러짐은 성경책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 보존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려는 마귀의 집요한 공격이 세상의 창건 이후로 늘 존재해 왔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예수님의 지상 사역 이후로 신약 성경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면서 그에 비례해 말씀을 훼손시키려는 마귀의 시도 또한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마귀의 공략은 주로 역사 속에서 천주교회로 알려진 바빌론 음녀 교회를 통해 실현되어 왔다.

사도 시대 이후로 마귀는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등의 부패한 서기관들을 이용하여 행위 구원과 마리아 숭배를 가르치는 천주교 교리에 적합하도록 부단히 성경 본문을 훼손시켜 왔다. 주후 500년경부터 약 천 년 동안 왕권마저 능가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1517년에 마르틴 루터라는 수도승에 의해 시작된 종교 개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은 무엇보다도

그가 공인 본문을 근거로 번역한 독일어 성경에 힘입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면서 교황의 천주교를 초토화시켰다. 1534년 영국에서는 헨리 8세가 수장령을 통해 천주교를 몰아내고 영국 국교회를 국가의 종교로 세움에 따라 천주교는 힘을 잃게 되었다. 또한 1588년에는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천주교 국가 스페인의 무적함대가 영국 해군에게 대패하였고, 엘리자베스 여왕 이후로 영국은 온 세상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다.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 주어지면 천주교의 무지와 미신과 맹신이 다 드러나므로 교황과 그의 추종자들은 중세 암흑시대에 성경을 금서(禁書)로 만들어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라스무스, 틴데일, 루터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이라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영적 무기를 들려주셨다.

특히 성경은 1450년경에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를 통해 견잡을 수 없는 속도로 전 유럽에 보급되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에 순응하며 목숨을 내걸고 일을 수행한 신실한 성도들 노력의 금자탑이요 결정체가 바로 1611년에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어인 영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이다.

종교 개혁에 이어 루터의 독일어 성경, 디오다티의 이탈리아어 성경, 올리베탕의 프랑스어 성경, 레이나/발레라의 스페인어 성경,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등이 유럽 대부분 국가의 보통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천주교 안에 팽배한 미신의 정체가 드러나자 로마 카톨릭 교회는 거의 회복되지 못할 정도의 치명타를 입게 되었다.

이에 천주교회는 잃어버린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 1540년에 로올라를 중심으로 하는 예수회(Jesuit)를 형성하여 반(反) 종교 개혁 운동을 시작하였는데 지난 500년 동안 예수회는 유럽에서 ‘예수 없는 예수회’라 불릴 정도로 악한 일을 많이 하여 심지어 세속 역사가들에게까지 손가락질 받기도 하였다. 또한 천주교회는 성경 본문에 관하여는 본문 비평(Textual criticism)이라는 도구를 개발하고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포장하여 프로테스탄트 신학교에 집어넣기 시작하였다.

잘 알다시피 인쇄술의 발명 이전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성경을 손으로 써서 사본들을 만들어야 했으므로 사람들이 손으로 필사하여 사본들을 만드는 작업에서는 필사자들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해 실수가 나올 수 있었다. 본문을 확정하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현존하는 사본들을 살펴보고 그런 사본들 사이의 차이를 발견한 뒤 잘못 표기된 단어나 첨가 혹은 삭제된 단어가 있으면 서로 의견을 모아 정확한 독본이 무엇인지를 결정한다. 에라스무스나 베자 혹은 스테파누스와 엘제비어 형제들 같은 이들은 다수 사본에 대한 확신을 가진 채 선한 의도로 이런 작업을 수행하여 천주교를 제외한 모든 교회가 1,500년 동안 공통적으로 수용한 공인 본문을 만들어 냈다. 그러므로 사본들을 비교하여 정확한 본문을 만드는 기초 작업은 선한 일이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본문 확정 작업이 직업 주의에 오염된 학자들의 손에 넘어가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이 될 때에는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본문 비평가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역사 속에서 소실된 성경 본문을 자기들의 힘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이다. 본문 비평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본문을 섭리로써 보존해 주심을 믿지 않으며, 본인들의 노력으로 인간들의 창작물에 불과한 다른 고대 문학 작품을 비평하듯이 성경 본문을 비평하려 한다. 다음은 한국의 유명한 본문 비평 학자의 말이다.

새로운 사본들의 지속적인 발견과 본문 비평이라는 학문의 발전으로 점점 더 고대의 훌륭한 본문을 회복하는 길이 열리고 있다. 성서의 본문이 변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성서의 본문이 변하기에 우리는 성서를 우상화하지 않는다. 성서를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성서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계시된다는 것이다. 또한 성서의 본문이 변하기에 성서가 살아 움직여 우리에게 늘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온다. 그것은 죽은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텍스트이다. 성서는 가지고 다니면서 받들어 모셔야 할 책이 아니라, 읽고, 명상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책이다(「신약서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대한기독교서회, 민경식 지음, 176쪽).

성경 신자들의 눈에 이런 글을 쓴 사람은 불신자와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과 타협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이런 사람을 위대한 신학자로 추앙한다. 현재 많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본문 비평은 실은 천주교회가 종교 개혁을 무력화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도구로서 학문의 상아탑이라는 미명하에 기독교 안에서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

천주교회의 본문 비평에는 내재된 원칙이 있다. 그것은 곧 후대 사본들에는 필사자들의 실수가 축적될 가능성이 크므로 오래된 사본일수록 성경의 원문에 가깝다는 믿음이다. 그러므로 본문 비평가들은 후대의 사본들이 아무리 많아도 상대적으로 수가 훨씬 적은 오래된 사본에 더 많은 신뢰와 권위를 준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그들이 가장 신뢰하는 사본은 바티칸 도서관에 보존된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산 동방 정교회 수도원에 보존된 ‘시내 사본’이다. 이것들은 주후 4세기경에 필사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초기 교회들이 천주교회의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 같은 소수 사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거의 모든 곳에서 공인 본문 사본만을 사용하였고 그 사본이 닳아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조심스레 그것을 필사하고 불태워버렸다. 이런 이유로 초기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던 오래된 사본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워낙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본들만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런 계통의 사본들은 현존하는 사본들의 99%를 차지할 정도이며 유럽과 아프리카, 팔레스타인 등의 기독교가 전파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된다.

반면에 대음모자 콘스탄틴 황제의 꼭두각시였던 유세비우스가 황제의 명령을 받아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 등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채 바티칸 도서관과 시내 산 수도원에 고이 간직되어 왔다. 또한 초기 교회 성도들은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값싼 파피루스에 대부분의 사본들을 필사하였기에 이것들을 오래 보존하기 어려웠으나 바티칸 사본 등은 벨럼이라는 가죽에 필사되어 장기간 보존될 수 있었다. 개역성경이나 현대 역본들의 각주에는 종종 “더 좋은 사본 혹은 더 신뢰할 만한 사본 혹은 더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더 좋은 사본’, ‘더 신뢰할 만한 사본’, ‘더 오래된 사본’은 한결같이 천주교회의 소수 사본을 가리킨다.

학문이라는 가면을 쓰고 신학교로 들어온 본문 비평은 19세기 후반에 절정을 이루었고, 영국에서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A. Hort) 박사에 의해 널리 파급되었다. 이들은 천주교 사상과 이교주의, 그리고 독일의 이성주의에 물든 자들로서 다윈의 진화론을 찬양하고 마리아 숭배를 옹호하며 유령 길드 같은 심령술 단체를 만들어 자유주의 이교도 신학을 전파하였다. 이들은 썬이어(J. H. Thayer)와 스미스(V. Smith) 같은 유니테리언 이단들과 함께 영국 성경 개정 위원회를 조직한 뒤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공인 본문을 교묘하게 비평하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이론으로 수정 본문을 만들고 여기에 근거하여 1881년에 영국개역성경(*English Revised Version, ERV*)을 출간하였다. 이들이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을 근거로 공인 본문을 개정하여 만든 부패한 본문은 보통 ‘비평 본문’ 혹은 ‘수정 본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에 거하기를 원하던 이 케임브리지 학자들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개역성경은 빛을 보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고, 그것의 미국 판인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ASV*) 역시 1901년에 출간되었으나 성도들에게서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한국의 개역성경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이론이 신학문으로 추앙받던 시기에 여러 면에서 흠이 많은 ASV를 주요 원천으로 해서 번역되었기에 이런 불신 학자들의 잘못된 사상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즉 최근에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출간되기 전까지 한국에서는 복음이 전파된 이래로 공인 본문에서 번역된 성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바로 이것이 대다수 한국 성경들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비록 ERV, ASV 등이 실패하였지만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들이 뿌려놓은 성경 의심 사상은 그 이후로 신학문이라는 미명하에 즐기치게 프로테스탄트 신학교들로 파고들어가 지금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신학교가 천주교회가 만든 ‘비평 본문’을 성경 원어 강좌의 본문으로 채택하여 가르치고 있다. 또한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학교나 학계에서 설 곳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거의 모든 원어 학자들이 한목소리로 천주교의 소수 본문을 옹호하고 있다.

한편 1611년에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은 마귀의 이러한 거센 공격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영국과 미국이 지배하는 영어 세상에서 ‘유일한 성경전서’(The Holy Bible)로 자리를 굳혀 왔다. 이에 마귀는 본문 비평과 학자들의 힘만으로는 성경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는 이 세상 미디어를 지배하는 언론 재벌 머독(R. Murdoch)이 소유한 존더벤(Zondervan)이라는 출판사를 이용하여 1970년경부터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NIV)이라는 사역(私譯) 성경을 만들어 냈다.

머독은 하퍼 콜린스라는 세속 출판사를 운영하며 '사탄경'(Satanic Bible)을 출간하고 있고 최근에는 토마스 벨슨 출판사를 매수하여 뉴킹제임스 역본(NKJV)을 출간하고 있다(이름에는 킹제임스가 들어가지만 이것 역시 부패된 성경임). 그는 상업적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경제인이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 사업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많은 광고와 함께 대규모 신학교의 교수들을 집필진으로 활용해 NIV를 홍보하면서 성경 시장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40년이 지난 지금은 NIV, NASB 등의 현대 역본들이 미국 성경 시장의 50% 정도를 잠식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교회는 배도의 길을 걸을 것이고 마귀가 장악한 천주교회는 계속 득세하여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므로 부패된 현대 역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들을 계속해서 낚아챌 것이다. 그러므로 말세의 배도하는 때에 천주교와 또 천주교를 배경으로 하는 현대 역본들의 세력을 꺾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므로 거의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말세에는 천주교가 주도하는 이런 대규모 배도가 당연히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악한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훼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원한 구원을 흐릿하게 하며 재림과 휴거와 천국의 소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어도 성경 신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확고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보존해 주신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은 미국/영국과 조금 상황이 다르다. 미국/영국은 약 40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이 독주하다가 19세기 말부터 현대 역본들이 출간되면서 야금야금 그 세력을 잡아먹는 상황에 놓여 있다. 반면에 한국은 처음부터 천주교 사본에 근거한 개역성경이 독보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몇 년 전부터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출간되어 이제 막 성경 이슈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에는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절대적 근거로 삼으려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으므로 이런 성도들이 성경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진리를 추구하게 되면 개역성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킹제임스 성경이 제공하는 좀 더 확실하고 풍성한 진리가 확립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런 진리를 먼저 깨달은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프로테스탄트 본문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 성도들에게 알려 이 땅에 좀 더 좋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는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지 몇 가지 이유를 기술하고자 한다.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데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민23:19)

하나님은 우리 같은 연약한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며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이시다. 이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대해 무어라고 하셨는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단어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단어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은 빵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단어]이 있어야 살 수 있다고 하셨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모든 단어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확실히 보존해 주시기 위하여 성경을 마무리하시면서 성경 변경자들을 엄중히 심판하시겠다고 경고까지 주셨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이처럼 성경 변경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오늘날 온전하게 보존된 성경이 만국 공통어로 보존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현대 역본들을 지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변경을 옹호하는 자들은 엄중한 심판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 보존의 약속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은 성경이 적어도 한 권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들고 진지하게 비교해 보기 바란다. 또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NIV, NASB, NKJV, 리빙 바이블, 메시지 등을 비교해 보기 바란다. 일단 개역성경을 포함한 현대 역본들은 신약 성경에서만 적어도 13구절을 통째로 삭제하고 이 구절들을 '없음'으로 표기해 놓았다(이 책자의

뒤표지 참조). 정직한 독자라면 ‘없음’이 없는 성경과 ‘없음’이 있는 성경들을 비교한 뒤 그것들이 다 같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몇 구절이 빠지거나 단어가 삭제되거나 첨가되어도 기독교의 근본 교리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과 목사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글 다음에 나오는 성경 분석을 읽어보면 누구라도 그들의 이런 주장이 거짓임을 금세 알 수 있다.

또한 지금 우리는 교리의 변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을 지금 이 시각까지 보존할 수 있는 분이신지 묻고 있는 것이다. 그분에게 이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무에서 유로 온 우주와 그 안의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실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 묻혀 썩어서 몸의 모든 원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 몸의 원소들을 다 모아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나 창조보다 말씀 보존이 훨씬 더 쉬운 일이 아닌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반드시 검증해 보아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쌓인 편견을 버리고 양심적으로 검증하면 할수록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하나님의 모든 단어를 담고 있고 그 외의 다른 역본들은 부실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라도 그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이 문제는 단순하고 명쾌하다. 이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며 평생을 연구해야 하는 일도 아니다. 모든 편견을 내려놓고 단 몇 시간만 투자하면 누구라도 성경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2. 킹제임스 성경은 왕의 명령에 따라 왕의 권위로 만들어진 유일한 성경이다.

이런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현대 역본들은 여러 교파의 다양한 신학적 배경과 이권을 가진 자들을 편집 위원으로 두고 있다. 그러므로 위원들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자신들의 신학과 배경에 맞게, 또한 출판업자의 의도에 맞게 본문을 번역하려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 뜻이 아니라 집필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번역이 최종 산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음행’(fornication)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며 성도들이 음행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한다(갈5:19; 엡5:3 등). 그런데 NASB 등의 현대 역본들은 이것을 ‘부도덕’(immorality)으로 바꾸어 버렸다. 부도덕과 음행은 완전히 다른 말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동성애 하는 자들을 ‘sodomites’ 즉 소돔 성에서 동성애 하던 자들이라고 분명히 부르지만 NKJV 등의 현대 역본들은 이것을 ‘비뒤틀어진 자들’(perverted persons)로 애매모호하게 바꾸어 버렸다(왕상14:24 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번역하면, 동성애나 음행이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이 시대에서 성경이 원활하게 판매될 수 없으므로 저들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단어들을 바꾸어 버렸다.

NIV의 편집자 중 하나인 몰렌코트 박사는 자신이 여성 동성애자임을 온 세상에 스스럼없이 밝히고 있으며 하나님은 여성들끼리 혹은 남성들끼리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왕의 명령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번역자들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신학을 번역 과정에서 집어넣을 수 없었다. 더욱이 번역하는 내용을 번역자들끼리 서로 돌아가며 수십 번 일일이 검토하였으므로 사적인 번역이 생길 가능성도 없었다. 또한 제임스 왕 자신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였으므로 종종 직접 번역을 검토하였다. 그러므로 사사로운 감정으로 본인들의 특정 신학이나 사상을 본문에 집어넣는 일은 불가능하였다. 그들은 단지 연약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여 보통 사람들에게 전달하려 하였을 뿐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기 전인 1560년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칼빈의 추종자들이 제네바 성경이라는 프로테스탄트 성경을 만들었다. 제네바 성경 역시 공인 본문에서 번역되었지만 칼빈의 신정 정치 개념을 여기저기 집어넣어 결국 사적인 성경이 되고 말았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1590년경부터 미국에 넘어간 청교도들이 가져간 성경이 바로 제네바 성경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칼빈주의라는 비성경적인 사적 해석이 들어간 제네바 성경에 복을 주시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에서는 그 이후에 들어온 킹제임스 성경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모든 미국 사람들의 헌법과 정신세계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면에서 왕의 명령에 의해 교리적 편견 없이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성경임을 역사가 보여 준다.

제임스 왕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합병하여 초대 영국 왕이 된 사람이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치적이 많지만 그는 역사 속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인물로 남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딴 성경을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겨 주셨고, 그 결과 그는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사람들에게 의해 이름이 많이 불리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 제임스는 야고보라는 유대인들의 이름을 영어로 표현한 것이다. 야고보는 야콥을 나타내는데 이 야콥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성경'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보다 더 좋은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

3.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 성경이다.

이것은 실로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요즘과 같은 컴퓨터 시대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되는 현대 역본들 안에는 많은 실수들이 있어서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곧 판이 바뀌곤 한다. NIV, NASB, NKJV, 리빙 바이블 등 현대 역본들이 모두 다 이런 같은 과정을 겪었고 개역성경도 수십 차례 변화를 겪었으며 심지어 최근에 나온 개역개정판도 나오자마자 판이 바뀌고 있다. 킹제임스 성경은 철자법 변화를 반영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40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거친 세파를 이겨내며 지금까지 온전한 본문을 전달하고 있다. 이런 성경이 역사 속에서 단 하나라도 있었던 말인가?

4. 모든 현대 역본들은 하나같이 다 킹제임스 성경만을 반대한다.

영어권에서는 NIV, NASB, NKJV, 리빙 바이블, 메시지 등 수백 종류의 역본들이 있다. 이런 역본들은 늘 “본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보다 좋다.”는 광고와 함께 출간된다. 어떤 현대 역본도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다른 성경을 비교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킹제임스 성경을 공략하는 것이 그런 역본들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성경 표지의 이름은 달라도 그 역본들이 다 천주교 사본에서 나온 사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황은 가만히 보좌에 앉아 성경 전쟁을 관망하면서 조금 보수적인 사람들에게는 NASB를, 킹제임스 성경의 냄새가 나는 성경을 원하는 자들에게는 NKJV를, 젊은이들에게는 NIV를, 아이들에게는 리빙 바이블을, 성경을 소설처럼 읽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바이블을,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의역성경인 앰플리파이드 바이블(Amplified Bible)을 던져 주고 있다. 이들이 무슨 성경을 보든지,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현대 역본이기만 하면, 교황이나 천주교 세력에게는 모두가 남는 장사이다. 번역의 형식과 표현, 겉표지가 다를 뿐 내용은 다 같기 때문이다.

5. 킹제임스 성경은 형식적 일치를 이룬 정직한 성경이다.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사상들을 전달해 주신다고 믿으며 또 그렇게 가르친다. 우리는 이것을 사상 영감이라고 말하며 이런 것을 믿는 분들은 성경 보존이란 사실 사상의 보존이며 따라서 번역은 사상만 전달되도록 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용하는 번역 기법은 유진 니다(Eugene Nida)에 의해 파급된 의역이다. 이들은 대충 뜻만 알아듣게 전달하면 임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리빙 바이블과 메시지이다. 또한 NIV도 절반은 의역이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그분께 부었다. 그 향유의 가치를 그리스어 원문은 ‘300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NIV는 ‘1년 치 봉급’이라고 했다. 이들은 NIV의 이런 의역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년에서 안식일과 절기를 빼면 300 데나리온 정도 번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NIV의 번역이 현대인들에게 의미가 훨씬 더 분명하게 전달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는 ‘1년 치 봉급’이 아니라 ‘300 데나리온’이라는 단어들 이 나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하거나 빼거나 수정하지 않고 정확하게 ‘300 데나리온’이라고 번역한 뒤 그 뜻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성경은 무작정 쉽게 술술 읽을 수 있는 소설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 담은 책이다. 그러므로 그런 단어들 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경이 아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상들이 아닌 단어들에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축자 영감에 기초하여 번역되었고, 수용 언어인 영어가 허락하는 한 원어의 단어와 영어의 단어가 서로 일치하며 문장의 형태까지도 일치하도록 번역되어 원문의 형식까지

그대로 보존된 성경이다.

원어에서 수용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는 부가적인 단어들 불가피하게 첨가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외국 문서를 번역해 보면 누구라도 이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번역을 위해 자기들이 첨가한 단어들에 대해서는 이탤릭체로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성경 독자들은 어떤 것이 원어 성경에 있던 단어이며 어떤 것이 번역자들이 첨가한 것인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이처럼 킹제임스 성경은 형식적 일치 기법에 따라 번역되었으므로 독자는 원어 성경이 없어도 원어와 똑같은 형식을 유지하며 독자적으로 번역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단어들을 그대로 읽고, 그것들을 원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현대 역본들은 첨가된 단어들을 이탤릭체로 구분하지 않았고 많은 경우 의역되었으므로 독자들은 이런 역본의 단어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인지 확인할 수 없다.

기존의 우리말 성경들은 이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단지 어감이나 읽힘성을 향상시키려고 많은 구절을 짧게 축약하고 의역했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하나님 말씀의 본래 뜻을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독자 번역의 원칙에 따라 우리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 내에서 성실하게 직역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있는 그대로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존 성경들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어라고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 있다.

6. 킹제임스 성경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성경은 없다.

마귀는 예수님의 출현을 막기 위해 온갖 꾀를 썼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여자의 씨로서 유대 땅에 탄생하셨다. 그분의 출생 이후에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분을 죽이려 하였으나 다 실패하였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장사되었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시자 계락을 바꾸어 신약 성경에서 그분의 신격을 축소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마귀가 가장 크게 훼손시킨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며 그 결과 현대 역본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비해 예수님의 신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다음 표는 현대 역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을 약화시킨 몇 사례를 보여 준다. 이 표가 보여 주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몇 구절만 비교해 보면 어린아이이라도 쉽게 현대 역본들의 이런 추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이 현대 역본들에서 약화되는 이유는 그것들의 모체인 천주교회의 소수 사본들이 부패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성경 중에서 킹제임스 성경만큼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경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 성경에 큰 복을 주셨다.

<현대 역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 약화>

KJV		NIV등 현대 역본들
주 예수 그리스도	행15:11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행16:31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행19:4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롬1:3	삭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전5:4-5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고전16:22	주
주 예수	고후4:10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고후11:31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엡3:14	삭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살전3:11	예수 우리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후1:8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후1:12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	요이3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롬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빌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역사적 사실들에 근거하여 우리는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있음을 확신하며 그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누가 온전한 성경을 보여 달라고 말하면 거리낌 없이 자신 있게 이 성경을 보여 줄 수 있다. 이런 확신 없이 믿음 생활하는 것은 드넓은 우주에서 갈 곳을 모른 채 홀로 떠도는 별똥별과 같고 망망대해를 나침반과 지도 없이 떠도는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로그스던 박사의 회개의 고백

이 글을 마치면서 우리는 NASB를 만든 로그스던 박사(Dr. Frank Logsdon)의 회개의 고백을 소개하려 한다. 로그스던 박사는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2년간 목회를 한 훌륭한 목사요, 성경학자였다. 그는 자기 친구인 사업가 록크맨의 권유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1901년 판 ASV를 살려 NASB로 만드는 작업을 하였다. 그는 여러 학자들을 찾아다니며 번역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였고 번역이 완성된 뒤 직접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자기가 만든 작품인 NASB가 실제로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는 무기임을 늦게나마 깨닫고 NASB와 관련된 자기의 행적을 회개하는 글을 쓰고 인터뷰를 하였다.¹⁾

하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제 나는 신미국표준역(NASB)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손을 떼려 한다. 사실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우리는 NASB라는 잘못된 성경의 기초를 놓았다. 사실 나는 이 역본의 형식을 결정했고, 번역자들 중 몇몇과 이야기도 나누었으며, 그들과 함께 앉아 일했고 서문을 썼다. 참으로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다. 지금 나는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NASB는 잘못된 것이며, 잘못되어도 매우 많이 잘못된 것이다. 아,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 역본이 발간된 뒤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쏟아져 들어오자 나는 참으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질문들을 하는 이들을 비웃곤 했다. 그런데 언젠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하려고 노력하던 중에 나는 NASB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같은 질문과 비평들을 무시할 수 없으며 반박할 수도 없다. NASB 안에서 삭제된 내용은 참으로 나를 두렵게 했다……그런데 그런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너무나 많았다. 과연 우리는 성경을 이같이 훼손시킨 일에 사탄의 속임수와 개입이 있었음을 의심해 봐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뒤에 나는 곧바로 NASB를 출간한 록크맨 재단의 설립자이자 내 절친한 친구인 록크맨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지금 NASB와 관련된 모든 것과의 관계를 끊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NASB는 참으로 내게 큰 슬픔을 가져다주었고, 큰 혼란에 빠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제 나는 NASB와 관련된 그 어느 것도 원하지 않는다.

처음에 내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부패된 그리스어 본문에 속아 넘어가는 듯했으나 지금은 다시 원상 복귀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훌륭한 지도자들이 이 같은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채 굳게 말씀을 지키고 있다. 사실 심히 변개된 그 본문에 눈을 돌리는 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 결국에는 넘어지고 만다. 이제 나는 무디 성경 학교의 학장인 조지 스위팅 박사에게도 진실을 이야기하려 한다.

이제 독자께서는 권위역본 킹제임스 성경이야말로 절대적으로 옳은 성경이라고 말해도 된다. 과연 얼마나 옳을까? 100% 옳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께서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을 인도하셨음을 확신한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이가 당신과 의견을 달리한다 해도 이제 당신은 스스로 서야만 한다.

¹⁾ <http://www.youtube.com/watch?v=wZBeIr1wKGY>, 참고로 우리말 개역성경은 로그스턴 박사가 개정한 ASV를 번역의 주요 원천으로 사용하였다.

NKJV를 포함한 모든 현대 역본들은 영지주의 이단인 오리겐이 편집한 ‘부패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본문’에 근거하고 있다. 그는 계22:18-19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수천 개의 단어를 변경하였다. 계시록은 말세 교회의 예표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여 주는데 이 교회는 자유주의 교회이고 음탕한 교회이다(계3:14-22). 궁극적으로 이 배도한 교회는 유혹을 받아 속아 넘어가서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저 음녀, 즉 자주색 옷을 입고 성도들의 피에 취한 채 짐승 위에 타고 있는 로마 카톨릭 체제와 하나로 엮이게 된다. 이런 혼합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순수한 말씀을 천주교회의 부패한 말씀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저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진실을 보여 주면 오히려 화를 내는 수많은 이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역사를 살펴보면 천주교회의 일원인 히틀러가 천주교회를 심히 사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국과 천주교회를 연합시키려 하였고 이 일을 쉽게 이루려고 뮐러 주교(Bishop Ludwig Muller)를 시켜 죄나 은혜 같은 단어들을 제거한 독일어 성경을 만들게 하였다. 이 성경의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혼과 영원한 생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히틀러와 함께 최상의 삶을 누리는 것만 가르쳐 주었다. 성경 변경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처음부터 마귀는 “그래,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이브에게 물으면서(창3:1) 의심의 씨앗을 사람의 마음에 뿌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살짝 의심을 불어넣은 뒤 그는 새로운 계시를 담아, 먹기에 좋게 보이는 말들을 도입하여 사람을 멸망으로 집어넣었다. 그 이후로 이런 유형의 마귀의 계략은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는 새로 발견된 사본들을 근거로 번역했다는 새로운 역본들을 수백 개나 만들어 여전히 사람들을 멸망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 단언하건대 새로운 계시는 없다. 하나님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지난 400년간 자신의 모든 말씀들(words)을 보존하셨다.

- NASB 편집위원 로그스던 박사(Dr. Frank Logsdon)

이제 결론을 내리려 한다.

위에서 설명한 이유들로 인해 우리는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천주교회의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굳게 세워 놓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저 랜드마크를 그대로 붙들고 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자손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랜드마크를 물려줄 것이다.

네 조상들이 세워 놓은 옛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잠22:28).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본 장에서는 웨이트(D.A. Waite) 박사의 「킹제임스 성경을 변호하며」(*Defending the King James Bible*)와 리플링거(G. Riplinger)의 「현대 성서와 뉴에이지」(*New Age Bible Versions*) 및 다른 자료를 이용하여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다음 네 가지 면에서 최근에 나온 현대 역본들보다 탁월하다.

- (1) 본문(Original Language Texts)
- (2) 번역자(Translators)
- (3) 번역 기법(Translation Technique)
- (4) 신학(Theology)

한 가지씩 사례를 제시하며 우리의 주장을 입증하기에 앞서 위의 네 가지 항목들을 다음 성경 구절과 비교하면 앞으로 전개할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전 3:9-11).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건물을 짓는 데 꼭 필요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 요소들은 성경 번역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다음 조건들과 비교될 수 있다.

- (1) 주건축자(Master builder): 사도 바울 등과 같이 성령님의 영감을 통해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 원본을 직접 기록한 사람들
- (2) 다른 사람들(Builders): 원본을 이용하여 각 나라 말로 번역하는 사람들
- (3) 건물을 어떻게 세우는가?(How to build): 번역의 방법 및 기술
- (4) 건물을 무엇으로 세우는가?(What to build): 번역의 재료 즉 신학

하나님의 건물의 기초나 성경의 기초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번역된 성경의 질이나 우수성은 위의 네 가지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심지어 그 안의 내용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현대 역본들을 비교해 보면 그 질이나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우수성

1.1 KJV의 구약 본문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나?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다(롬3:1-2).

이 성경 말씀이 보여 주듯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맡겨졌고 이들 중에서 성경을 맡아 직접 손으로 복사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을 서기관(성경기록관, Scribe)이라고 불렀다.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을 보관하고 복사하는 일이 그 어느 일보다도 중요했으므로 자연히 서기관들은 큰 대접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등과 함께 큰 권세를 지닌 그룹이 되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필사 과정의 한계 때문에 성경 본문에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므로 이런 필사본에 근거한 본문을 사용하여 번역한 성경에는 오류가 있게 마련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보존을 위해 선택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많은 인본주의자들의 막연한 생각이 상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1960년, 밀러(H.S. Miller)가 지은 「일반 성경 입문」(*General Biblical Introduction*)에는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 회당에 있던 두루마리들을 복사하면서 지킨 여덟 가지 준수 사항이 있다.

- (1) 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되 오직 유대인만이 만들 수 있으며 정결한 짐승으로부터 만든 끈으로 묶어야만 한다.
- (2) 두루마리의 각 난에는 48 줄에서 60 줄이 들어가야만 한다.
- (3)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해야만 한다.
- (4)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 적어서는 안 된다.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통 복사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소리로 읽고 발음해야 한다.
- (5)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만 하며 여호와(Jehovah)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반드시 온몸을 씻어야만 한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주(主) 즉 전체가 대문자로 된 'LORD'로 번역되었는데 이 이름을 쓰기 위해 그는 필사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이 몸을 씻어야만 했다.

- (6)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례들이 있었다.
- (7)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이 완성된 뒤 30 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무효가 된다. 또한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만 했고 전체 필사본에서 세 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폐기해야만 했다.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한 뒤 그중에 단 세 개의 실수가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창세기부터 필사해야 한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 얼마나 신중을 기했는지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들이 필사하는 말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됨을 믿었으므로 이런 철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전하게 보존해 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본문에서 빼거나 본문에다 첨가하거나 본문을 바꾸거나 하는 NIV, NASB, NKJV 등의 현대 역본 기록관들과는 매우 달랐다. 이런 치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온전하게 보존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친히 읽으신 말씀이 자필 원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저 없이 성경이라고 부르셨다.
- (8) 그들은 글자와 단어 수를 세었고, 만일 글자가 삭제 혹은 첨가되었거나 다른 글자와 붙어 있으면 필사한 사본 전체를 버렸다

이 같은 규칙들을 소개한 뒤 밀러는 이렇게 덧붙여 말한다.

이런 규칙들이 좀 부조리하거나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거룩하게 여겼는지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경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안에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도 된다.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 본문은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Traditional Masoretic Hebrew Text)이다. ‘마소라’라는 말은 주후 10세기경에 처음 사용된 말이 아니라 주전 400여 년 전부터 사용된 말로서 ‘전해져 내려오다’라는 뜻의 ‘마사르’(masar)에서 파생된 말이며 현재는 ‘전통적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또한 ‘마소라’라는 말은 명사로 쓰일 때에 ‘히브리어 자음 본문’(Consonantal text)을 보존해 온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한다.

‘히브리어 자음 본문’은 전통적인 히브리어 성경 본문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WATER’를 보면 그 안에 ‘a’와 ‘e’라는 모음이 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히브리 단어였다면 모음이 없는 ‘WTR’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물론 마소라들은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만일 이 단어에 다른 모음들을 넣으면 그 단어가 전혀 다른 뜻을 갖는 ‘WAITER’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보여 주고 단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소라들은 모음 표시를 했다. 예를 들어, 자음 밑에 있는 ‘t’는 ‘아’(ah)라는 발음을

갖고, 점이 세 개 있으면 ‘에’(eh), 점이 두 개 있으면 ‘아이’(ay), 그리고 점이 하나 있으면 ‘에에’(ee) 등으로 발음된다.

이 같은 기호들은 ‘읽는 것을 도와주는 어머니’라는 뜻을 지닌 ‘마트레스 렉서니스’(Matres lectionis)라 불리며, 이런 기호들을 통해 이방인이나 본문에 익숙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히브리 단어를 읽고 그 뜻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WATER’와 ‘WAITER’는 이런 기호들에 의해 구분이 된다. 마소라들은 이처럼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보존하고 거기에다 모음 부호를 달아 준 사람들이다. 특히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일이 매우 지대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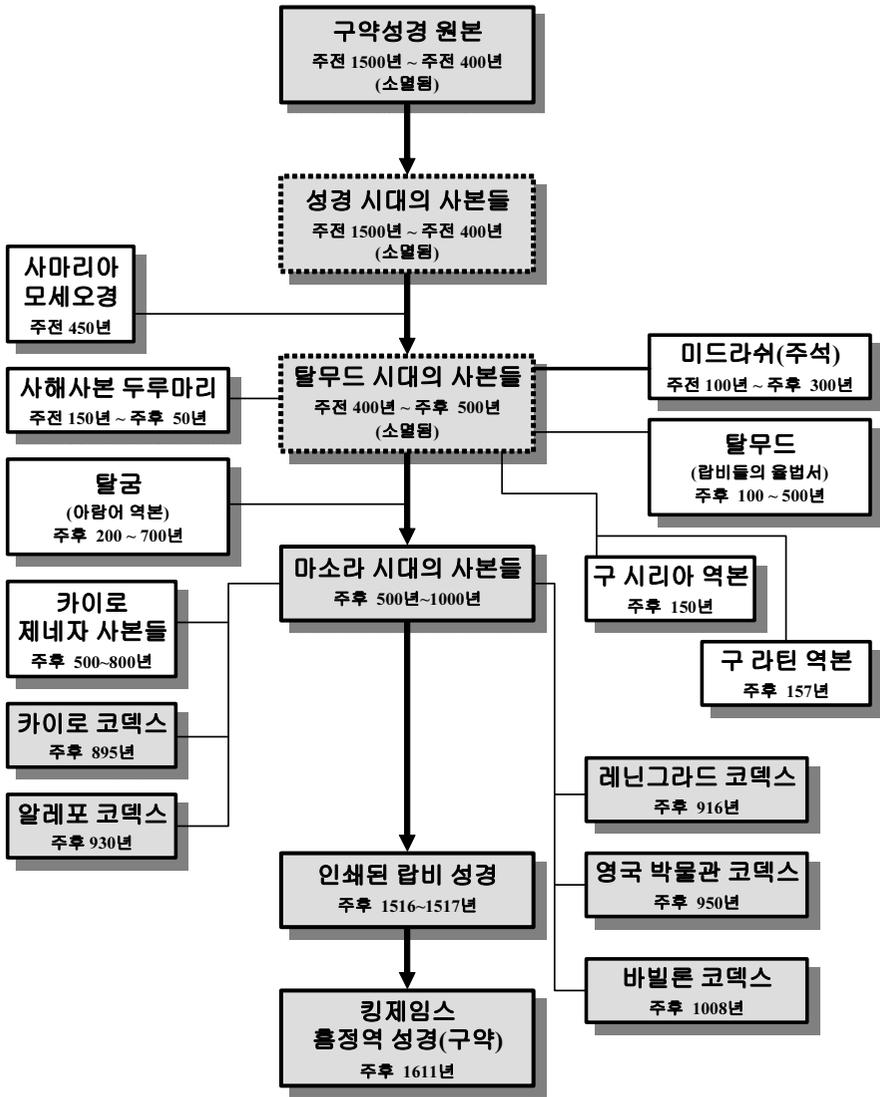
이들 마소라들은 주후 500~1000년경에 매우 많이 존재했으며, 주후 600~700년경에 자음 본문에 모음 부호를 달아 표준화하는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들이 만든 본문을 ‘마소라 본문’ 즉 ‘전통 본문’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이 마소라 본문을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채택하였다.

1.2 NIV, NASB 등 현대 역본들의 구약 본문

신미국표준역(NASB)의 서문에는 번역자들이 키텔(Rudolf Kittel, 1853-1929)의 「Biblia Hebraica」 최신판(3판)과 최근의 어휘 사전, 히브리어와 동일한 기원을 지닌 다른 나라의 말들, 그리고 사해 사본 등에 기초해서 NASB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시 말해, NASB의 구약 본문은 ‘전통 마소라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을 이용하여 번역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밑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키텔과 칼레(Paul. E. Kahle, 1875-1964)의 1937년 판 「Biblia Hebraica」에는 페이지마다 각주에 15~20 군데의 수정 사항이 들어 있으므로 구약 성경 전체에 최소한 20,000 군데의 수정 사항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럴진대 과연 이것을 보존된 성경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신국제역(NIV) 역시 그 서문을 보면 키텔의 「Biblia Hebraica」(3판)와 사해 사본, 사마리아 모세 오경, 본문을 수정하는 데 사용된 고대 성경 기록관들의 전통, 본문 여백에 있는 여러 종류의 다른 본문들, 70인역,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 등을 사용하여 구약 본문을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뉴킹제임스역(NKJV)의 서문 역시 번역자들이 1967/1977년 판 「Stuttgart Edition of Biblia Hebraica」를 사용했다고 기록한다. 이것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만들어진 본문이므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라고 불리며 내용 면에서는 키텔의 「Biblia Hebraica」(3판)와 거의 비슷하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키텔의 본문은 보통 「Biblia Hebraica Kittel」 즉 「BHK」라고 부르며, NKJV가 사용한 본문은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즉 「BHS」라고 부른다. 이 「BHS」 역시 「BHK」처럼 페이지마다 각주에 수정 사항이 들어 있고 구약 성경 전체에 약 20,000 군데의 수정 사항이 들어 있다. NKJV의 역자들은 자신들이 종종 KJV의 근간이 된 1525년 판 「뵘베르그 마소라 본문」과 비교하였으며, 70인역,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 사해 사본 등을 참고하고 그것들과도 비교했다고



<킹제임스 흠정역 구약 성경>

말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NKJV 역시 ‘전통 마소라 본문’ 외에 다른 것을 기초로 해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1.3 마소라 사본들은 모두 동일한가?

새로 출간되는 성경들에 대한 광고를 보면 NIV, NASB의 역자들도 자신들이 ‘전통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여 구약 성경을 번역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독자들은 이들도 KJV의 ‘전통 마소라 본문’을 사용한 것으로 믿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마소라 본문에는 두 종류가 있고 KJV의 마소라 본문과 NIV, NASB 등 현대 역본의 마소라 본문은 매우 다르다. 이들이 마소라 본문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하여 KJV를 읽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KJV의 히브리어 본문과 현대 역본들의 히브리어 본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1516-1517년에 유대인 랍비들이 출간한 구약 성경은 ‘다니엘 뵘베르그판’(Daniel Bomberg Edition)이라 불리며 ‘제1 랍비 성경’(The First Rabbinic Bible)이라고도 불린다. 그 이후 1524-1525년에 제2판이 출간되었는데 벤 카임(Jacob Ben Chayyim)이 편집하였다 해서 이 본문은 ‘벤 카임 마소라 본문’(Ben Chayyim Masoretic Text)이라 불리며 ‘제2 대(大) 랍비 성경’(The Second Great Rabbinic Bible)이라고도 불린다.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은 출간된 뒤 400여 년이 지나도록 표준 마소라 본문으로 인정받아 왔는데 KJV 역자들은 바로 이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을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사용했다.

한편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게 반유대주의 사상을 제공한 키텔(Rudolph Kittel, 1853-1929)은 1906년과 1912년에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여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Kittel, BHK) 1, 2판을 편찬해 내면서 비평 장치라 불리는 각주들을 이용해 ‘전통 마소라 본문’을 페이지마다 15~20 군데씩 수정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런 각주들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벤 아셰르 마소라 본문’(Ben Asher Masoretic Text)에 근거한 것들이다. ‘벤 아셰르 마소라 본문’은 주후 1008년에 만들어진 레닌그라드 사본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레닌그라드 사본은 ‘전통 마소라 본문’과 매우 다르다.

1929년에 그가 죽은 뒤 칼레(Paul. E. Kahle, 1875-1964)는 전격적으로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본문을 ‘벤 아셰르 마소라 본문’(Ben Asher Masoretic Text)으로 바꾸고는 키텔의 이름을 붙여서 1937년에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3판을 출간하였다. 이 같은 본문 교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 20,000 군데가 수정된 것을 뜻한다. 키텔의 작품이 아님에도 보통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3판」(BHK)으로 불리는 이 성경 즉 비전통 ‘벤 아셰르 마소라 본문’에 근거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마침내 1967/1977년판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로 개정 출간되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KJV를 제외한 NASB, NIV, 신개역표준역(NRSV),

NKJV 등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이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사용한 마소라 본문이 유대인들의 ‘전통 마소라 본문’인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중요한 키텔의 「BHK 3판」과 자유주의 신학의 온상지인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BHS」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신학 대학에서 성경 본문에 대해 논쟁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경우 어떤 본문을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자신이 읽으신 성경 말씀이 자필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이었지만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며 기록된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분명히 위 구절 안에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록되바’(it is written)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세의 자필 원본이 아니고 모세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약 1500년 동안 필사되어 보존된 성경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모든 말씀’이란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말씀(단어)이 보존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즉, 우리 주님께서서는 자신의 손 안에 들어 있는 필사본 성경이 자필 원본과 똑같은 것임을 증명해 주셨으며 그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하셨다.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이 외에도 다른 구절들을 참고하기 바란다(마5:17-18; 눅24:27; 눅24:44 등).

1.4 KJV의 신약 본문

KJV 신약 성경의 근간이 된 본문은 그리스어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이다. ‘공인 본문’은 누가 이것을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公認本文)이 아니고 누구나 이를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共認本文, Received Text)이며 따라서 이것은 모두가 수용했다는 의미의 ‘수용 본문’(收容本文)이라고도 불린다.

‘공인 본문’은 KJV 신약 성경 번역의 토대가 되었으며 특히 1598년에 출간된 베자의 제5판이 사용되었다. ‘공인 본문’의 특징은 우선 신약 교회가 거의 1900년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며 그 내용이 변화가 없이 한결같다는 것이다. 이 본문은 다수 사본에 근거했기에 ‘다수 본문’이라고 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었기에 ‘보편적 본문’이라고도 하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서방본문’과 대비되어 ‘비잔틴(혹은 동방) 본문’이라고 하고, 루터와 칼빈 등의 종교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본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개혁본문’이라고도 한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사용된 그리스어 본문은 상당수의 서로 다른 편집자들에 의해 조합되었다.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사람들로는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베자(Theodore Beza), 스테파누스(Robert Stephanus)와 엘제비어 혹은 엘지버 형제(Elzevir Brothers), 아브라함파 보나벤투라(Abraham and Bonaventure)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에라스무스는 다섯 번에 걸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다. 1516년의 제1판에 이어, 1519년에는 마르틴 루터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의 독일어 번역본에 사용했던 제2판이 나왔다. 그 뒤 그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판은 1522년, 1527년 그리고 1535년에 각각 출간되었다. 에라스무스의 작품은 매우 훌륭했고 지금까지 수 세기 동안 모범 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스테파누스는 1546년, 1549년, 1550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1551년에 모두 네 판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다. 베자도 1565년, 1582년, 1588년, 그리고 1598년에 걸쳐 여러 판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다.

KJV의 역자들은 1598년의 베자 성경과 1550년과 1551년의 스테파누스 성경을 주요한 출전으로 사용했다. 1611년에 KJV가 출간된 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엘제비어 형제가 1624년, 1633년, 그리고 1641년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출간했는데 이들은 에라스무스의 표준을 따랐던 베자의 판을 충실히 따라가며 본문을 편집했다. 한편 이들은 1633년에 출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서문에 그때까지의 본문들을 개선하여 얻은 명성만큼이나 유명한 문구를 새겨 넣었는데, 그 문구는 라틴어로 “textum ergo habes, nunc ab omnibus receptum...”이며, 그 뜻은 “사람들이 수용한 책으로부터 입수한 본문에 따르면...”이라는 뜻이다. 바로 이 구절에서 ‘공인 본문’ 혹은 ‘수용 본문’(Received Text 혹은 *Textus Receptus*)이라는 명칭이 탄생하였다.

1.5 NIV, NASB 등 현대 역본들의 신약 본문

사도 시대부터 약 1900년 동안 신약 교회는 ‘공인 본문’만을 사용해 왔으며 특히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이후에는, 비록 여러 개의 영어 성경이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60년 동안 다른 영어 성경은 거의 쓰이지 않았다. 또한 KJV는 온 세계로 퍼져 나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보편적 성경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인정하신 성경’이라는 인식하에 ‘권위역본’(Authorized Version)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불안을 느낀 카톨릭 교회에서는 소위 본문 비평이라는 도구를 도입하여 성경을 단지 역사책처럼 취급함으로써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 했으며, 이를 위해 허영에 들뜬 신학자들을 부추기기 시작했다. 이 같은 시도는 결국 사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1881년에 영국 성공회에 속한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J. Hort)라는 두 명의 학자들은 ‘공인 본문’에서 무려 5,604 군데나 수정하여 ‘비평 본문’이라는 개악된 본문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공인 본문’에서 빼거나 변경하거나 추가한 단어들은 무려 9,970개나 되며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 본문에 나오는 140,521개 단어의 7%에 해당한다.

웨스트코트는 영국 성공회의 주교였으며 호르트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들은 강신술 등에 심취한 영성주의자들이요, 지옥이나 마귀 등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고 창세기 기록을 신화로 생각한 인본주의자들이었다. 이들이 변경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리스어 ‘공인 본문’과 ‘비평 본문’ 비교>

	공인 본문	비평 본문
총 단어 수	140,521	총 5,604 군데 수정: (1,952 군데 삭제, 467 군데 추가, 3,185 군데 변경)
총 페이지 수	647	9,970 단어 변경
페이지당 단어 수	217	페이지당 15.4 단어 변경
변경된 단어	없음	전체 단어 중 7% 변경
변경 분량	없음	총 46 페이지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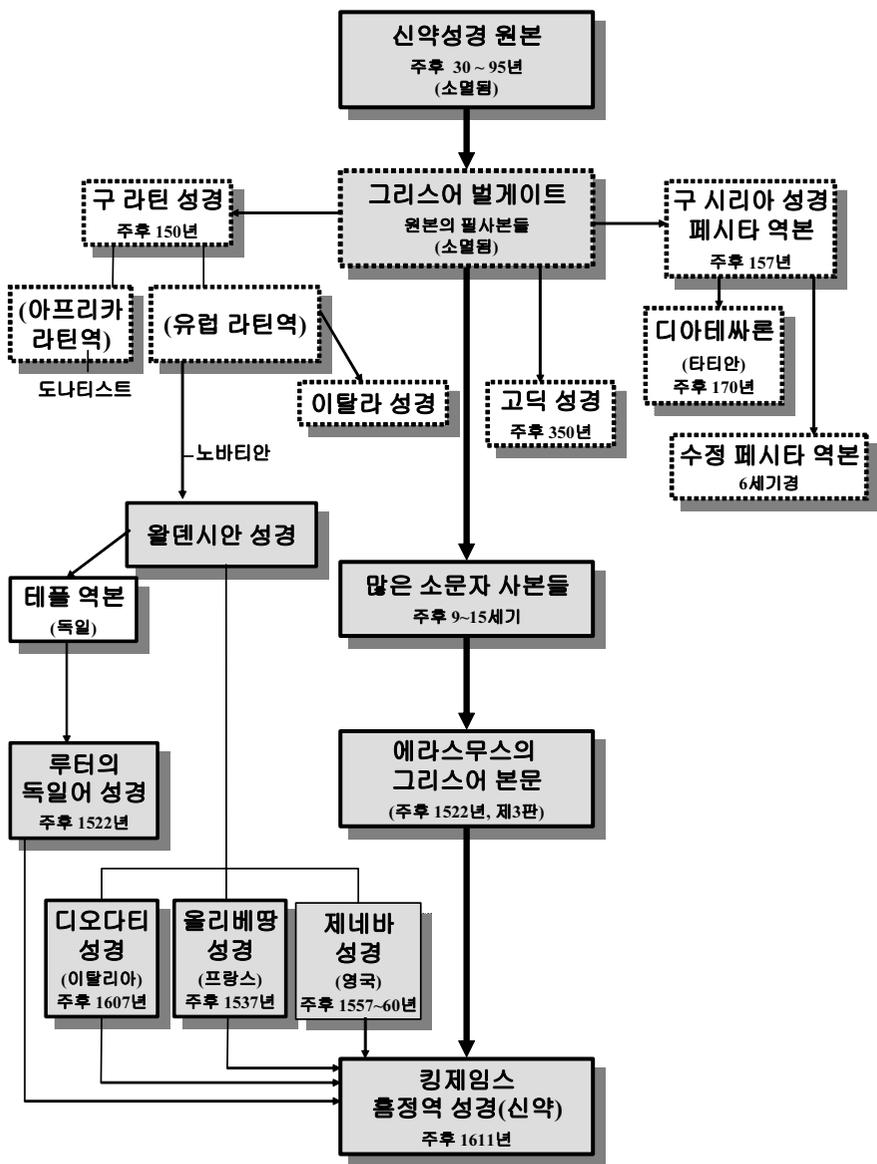
1988년에 무어맨(Jack Moorman) 박사는 ‘공인 본문’과 현대 역본들의 근간이 된 「네슬레/알란드판」(*Nestle/Aland Edition*)의 그리스어 본문의 단어 수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네슬레/알란드판」의 본문이 ‘공인 본문’에 비해 2,886 단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 본문’이 1,952 군데를 삭제한 데 비해 네슬레와 알란드의 본문은 그보다 934 단어를 더 삭제하였다. 이만큼 단어가 삭제되면 결과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전후서 정도에 해당하는 분량이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현대 역본을 읽으면 그만큼 짧은 성경을 읽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한편 이들은 단순히 단어만 변경한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 자체를 변경하여 뉴에이지 신학을 수용하고 있다. 우리는 수학에서 평면이나 입체를 배울 때 두 개의 사물이 같은가 다른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공리를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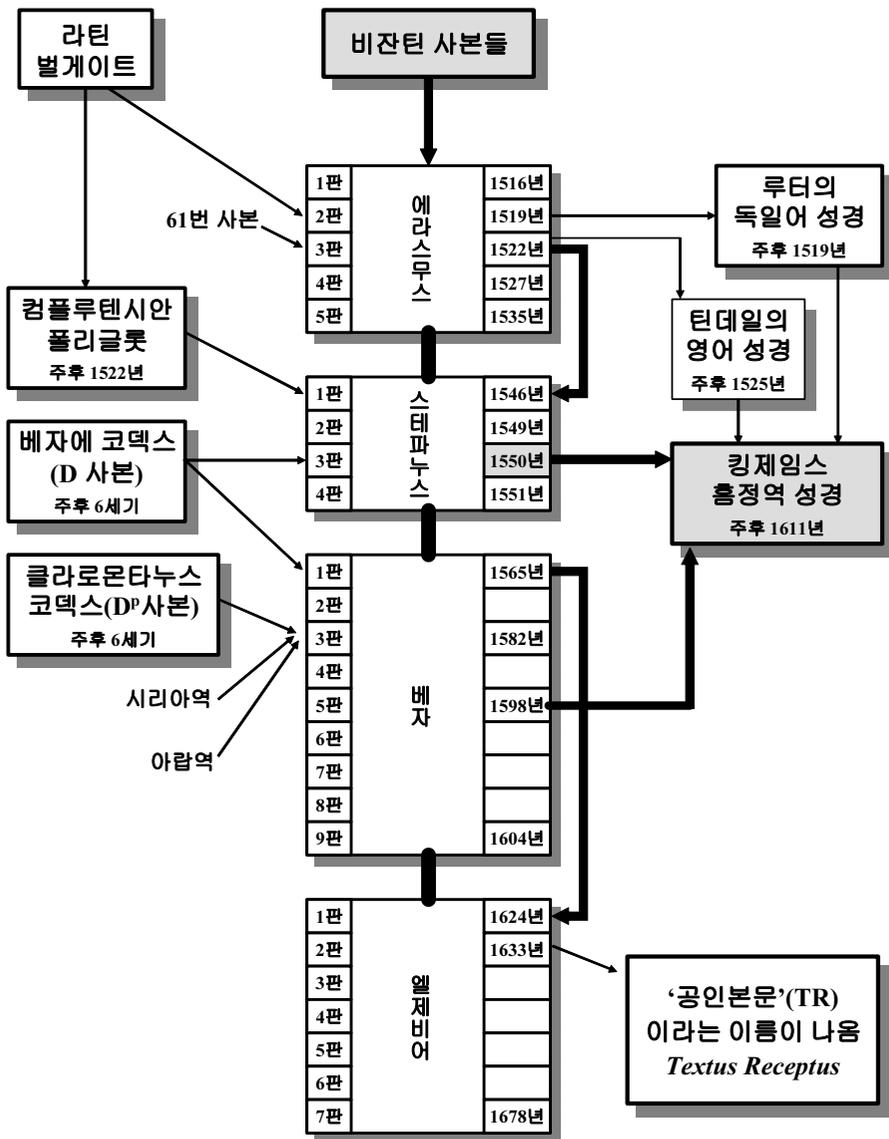
주어진 어떤 것과 동일한 두 개의 사물은 서로 동일하다.

이 규칙을 성경 번역에 적용해 보면 NIV든 NASB든 그 역본들의 근간이 되는 그리스어 본문이 ‘공인 본문’과 5,600 군데나 다르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난 1900년 동안 보존해 온 ‘공인 본문’에 근거를 둔 KJV와 절대로 동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NIV나 NASB를 손에 들고 이것이 영어로 보존된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의 표는 신약 성경의 모든 책에서 200여 구절을 발췌하여 여러 역본의 순수성을 비교한 것이다. 이 표의 맨 오른쪽 열은 비교 대상인 200 구절 중에서 변경된 구절 수를 나타내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공인 본문’에 기초한 ‘루터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빼고는 모든 현대 역본들의 부패 정도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독자는 「박사성경」(정동수 저,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 출간)을 참조하기 바란다.



<킹제임스 흠정역 신약 성경>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신약 성경>

1.6 역사적 증거들

‘공인 본문’(TR)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은 본문이라는 것은 다음의 사실들이 증명한다.

- A. 주후 33-100년 사이의 사도 교회 시대
 - (1) 초기의 사도교회들이 다 TR을 사용했다.
 - (2) 팔레스타인에 있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 (3) 안디옥의 시리아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B. 주후 100-312년 사이의 초대 교회 시대
 - (4) 페시타 역본이 TR을 사용했다.
 - (5) 파피루스 66번이 TR을 사용했다.
 - (6) 북이탈리아의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7) 남프랑스 골 지방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 (8) 영국의 켈트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9)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10) 왈덴시아파 사람들의 교회 이전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 (11) 왈덴시아파 사람들의 교회들이 TR을 사용했다.
- C. 주후 312-1453년 사이의 비잔틴 시대
 - (12) 4세기의 「고딕역」이 TR을 사용했다.
 - (13) 4, 5세기의 ‘W 코덱스 사본’이 TR을 사용했다.
 - (14) 5세기의 ‘A 코덱스 사본’이 TR을 사용했다.
 - (15) 5,255 개의 사본 중 5,210 개의 사본이 TR을 사용했다.
 - (16) 그리스 정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17) 현시대의 그리스 정교회 역시 오직 TR만을 사용한다.
- D. 주후 1453-1831년 사이의 초기 현대 시대
 - (18) 종교개혁 시대의 모든 교회가 TR을 사용했다.
 - (19) 1516년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0) 1522년의 「컴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이 TR을 사용했다.
 - (21)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2) 1525년의 「틴데일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3) 1535년의 프랑스의 「올리베탕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4) 1535년의 「커버데일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5) 1537년의 「매튜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6) 1539년의 「태버너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7) 1539-1541년의 「그레이트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8) 1546-1551년의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29) 1557-1560년의 「제네바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0) 1568년의 「비숍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신약 성경 역본 비교: 200 구절>

	신약 성경 역본	변경/삭제
1	「한글개역성경」(<i>Korean Revised Version</i>)	177
2	「신영어역」(<i>New English Bible, NEB</i>)	197
3	「신국제역」(<i>New International Version, NIV</i>)	195
4	「개정표준역」(<i>Revised Standard Version, RSV</i>)	189
5	「버클리역」(<i>Berkeley Version</i>)	185
6	「위마우스역」(<i>Weymouth's in Modern Speech</i>)	184
7	「신미국표준역」(<i>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ASV</i>)	183
8	「현대인의 성경」(<i>Good News for Modern Man</i>)	182
9	「윌리암스역」(<i>Williams' New Testament</i>)	180
10	「패닌역」(<i>Ivan Panin's Numeric New Testament</i>)	180
11	「굿스피드역」(<i>Goodspeed's American Translation</i>)	179
12	「모팻역」(<i>Moffatt's New Translation</i>)	175
13	「우에스트역」(<i>Wuest's N. T.</i>)	169
14	「증보역」(<i>Amplified New Testament</i>)	165
15	「20세기역」(<i>Twentieth Century N. T.</i>)	161
16	「필립스역」(<i>Phillip's New Testament</i>)	142
17	「다비역」(<i>Darby's Translation N. T.</i>)	138
18	「리빙바이블」(<i>Living Bible Paraphrased</i>)	130
19	「신조합역」(<i>New Confraternity N. T.</i>)	119
20	「놀리역」(<i>Norlie's New Translation N. T.</i>)	62
21	「람사역」(<i>Lamsa's Eastern Text N. T.</i>)	49
22	「웨슬리역」(<i>John Wesley's Translation N. T.</i>)	43
23	「루터의 독일어 성경」(<i>Martin Luther's German N. T.</i>)	0
24	「영어 킹제임스성경」(<i>King James Version N. T.</i>)	0

(마1:25; 5:44; 6:13; 6:27; 6:33; 8:29; 9:13; 12:35; 12:47; 13:51; 15:8; 16:3; 16:20; 17:21; 18:11; 19:9; 19:17; 20:7; 20:16; 20:22; 21:44; 23:14; 25:13; 27:35; 28:2; 28:9; 막1:1; 1:14; 1:31; 2:17; 6:11; 6:16; 6:33; 7:8; 7:16; 9:24; 9:42; 9:44; 9:46; 9:49; 10:21; 10:24; 11:10; 11:26; 13:14; 13:33; 14:68; 15:28; 16:9-20; 눅1:28; 2:33; 2:43; 4:4; 4:8; 4:41; 6:48; 7:31; 9:54; 9:55; 9:56; 11:2-4; 11:29; 17:36; 21:4; 22:20; 22:31; 22:64; 23:17; 23:38; 23:42; 24:3; 24:6; 24:12; 24:49; 24:51; 요1:14; 1:27; 3:15; 4:42; 5:3; 5:4; 6:47; 6:69; 7:53; 8:16; 9:35; 11:41; 16:16; 17:12; 20:29; 행2:30; 7:30; 7:37; 8:37; 9:5:6; 10:6; 15:18; 16:31; 17:26; 20:25; 20:32; 23:9; 24:6-8; 24:15; 28:16; 28:29; 롬1:16; 1:29; 8:1; 9:28; 10:15; 10:17; 11:6; 13:9; 14:6; 14:21; 15:29; 16:24; 고전1:14; 5:7; 6:20; 7:5; 7:39; 10:28; 11:24; 15:47; 16:22; 16:23; 고후4:6; 4:10; 5:18; 11:31; 갈1:15; 3:1; 3:17; 4:7; 6:15; 6:17; 엡3:9; 3:15; 5:30; 6:1; 6:10; 빌3:16; 골1:2; 1:14; 1:28; 2:11; 3:6; 살전1:1; 2:19; 3:11; 3:13; 살후1:8; 딤편1:17; 2:7; 3:16; 4:12; 6:5; 딤후1:11; 4:1; 4:22; 딤편1:4; 몬1:6; 1:12; 히1:3; 2:7; 3:1; 7:21; 10:30; 10:34; 11:11; 약5:16; 벧전1:22; 4:1; 4:14; 5:10; 5:11; 벧후2:17; 3:9; 요일1:7; 2:7; 4:3; 4:9; 4:19; 5:7-8; 5:13; 유1:25; 계1:8; 1:11; 2:13; 5:14; 6:1; 8:13; 11:17; 12:12; 12:17; 14:5; 16:17; 20:9; 20:12; 21:24)

- (31) 1569년의 「스페인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2) 1598년의 「베자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3) 1602년의 「체코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4) 1607년의 디오다티의 「이탈리아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5) 1611년의 「킹제임스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 (36) 1624년의 엘제비어(혹은 엘지버) 형제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TR을 사용했다.

1.7 사본들의 증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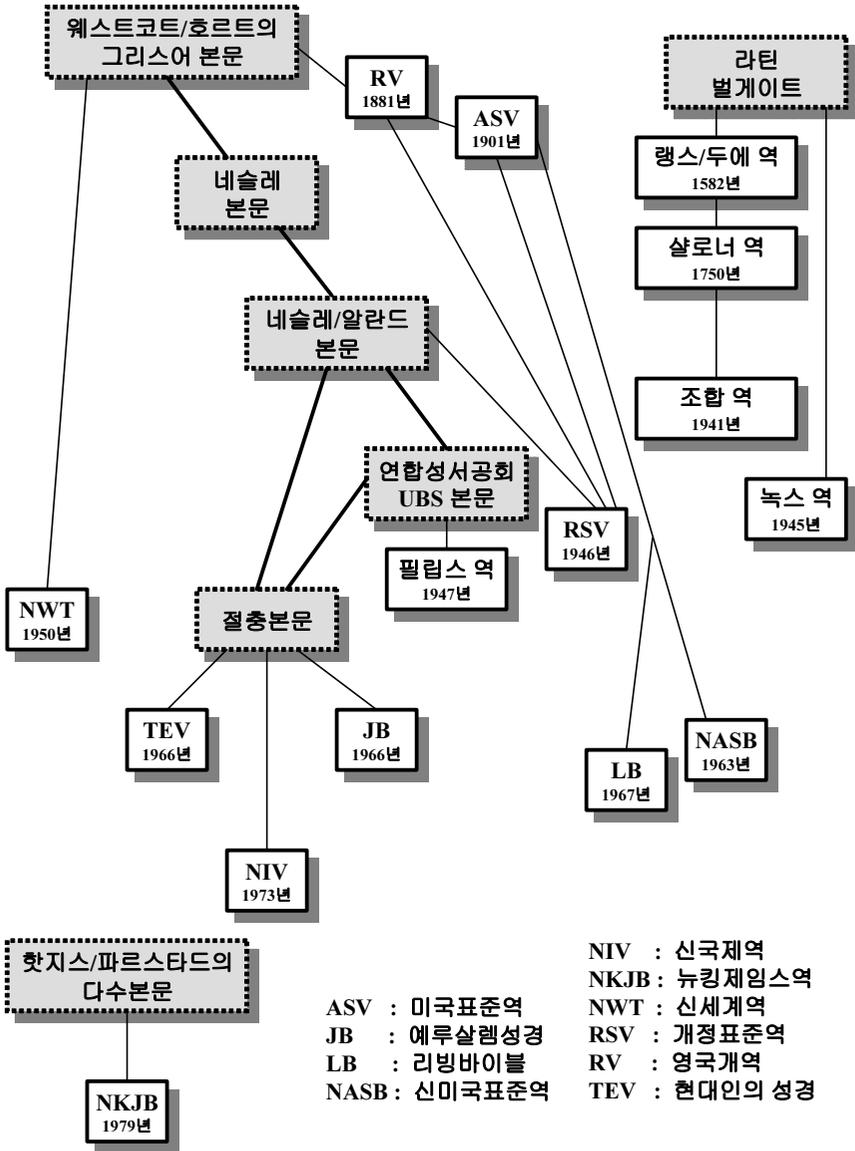
1967년도까지 존재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의 수는 모두 5,255 개이다. 이런 사본들에는 81 개의 파피루스 사본과 267 개의 대문자 사본, 2,764 개의 소문자 사본, 2,143 개의 기도문(혹은 교독문) 등이 있다. 다음 표는 이런 사본들이 어떤 본문을 지지하는지 잘 보여 준다.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현존하는 사본들의 99%가 ‘공인 본문’을 지지한다. 이 사실은 초대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오직 ‘공인 본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필사하여 각 지역에서 사용했음을 잘 보여 준다.

<사본들의 본문 지지도>

사본 종류	개수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	웨스트코트/호르트 및 네슬레/알란드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
파피루스	81	68(84%)	13(14%)
대문자 사본	267	258(97%)	9(3%)
소문자 사본	2,764	2,741(99%)	23(1%)
기도문 등	2,143	2,143(100%)	0(0%)
합계	5,255	5,210(99%)	45(1%)

지금까지 수정된 적이 없는 ‘공인 본문’과는 달리 1898년에 처음 만들어진 네슬레의 그리스어 성경은 2012년까지 27번이나 판을 개정하여(현재 28판) 평균 4.2년마다 새로운 판이 개정되어 나왔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기호에 맞게 성경을 뜯어고치려 했음을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고정되어 더 이상 가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배도한 사람들이다.

특히 알란드(Kurt Aland, 1915-1994)는 배도한 독일인으로서 독일의 문스터에서 일하다가 사망하였다. 그는 ‘공인 본문’을 믿지 않고 ‘네슬레/알란드판’ 편집 위원회의 의장으로 일하였으며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의 90% 정도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복사하여 보관했다. 그는 ‘공인 본문’과 일치하는 사본을 발견할 때면 무조건 그것을 무시하고 그 사본이 과거의 어떤 사본을 베낀 형편없는 사본이라고 주장하였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비평 본문과 현대 역본들>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 하며 사본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은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을 모두 한 덩어리로 묶어 그 개수에 상관없이 단일 증거로만 사용하려 한다.

이들이 이 같은 철학을 수용한 데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주후 250~350년 사이에 초대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회의가 열려 자기들이 선호하는 사본들을 모두 없애고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만을 간직하게 되었다는 해괴망측한 이론을 폈는데 알란트와 그의 동료들은 바로 이같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상상 속에서 꾸며 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역사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으며 날조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로마 카톨릭 주위에 심취되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같은 영성주의자들의 이론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지금은 로마 카톨릭 소수 사본들 즉 전체 사본 중 1%에 해당하는 사본들에 근거를 둔 NIV, NASB 등의 현대 역본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있다.

2.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우수성

2.1 KJV 번역자들의 우수성

KJV 번역에 참가한 사람들은 약 57명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학문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었고 관료나 학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두 언어에 정통해야만 했다. 이들의 원어 실력은 다음과 같이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15, 16세기경 조선 왕조에서 출세를 하려면 한문 실력이 뛰어나야만 했으며 따라서 유서 있는 집안에서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사서삼경(四書三經) 등의 중국 고전을 읽고 외우고 공부하게 했다. 자, 이렇게 어려서부터 중국 고전을 읽어 술술 외는 사람과 성장한 뒤 대학에 가서 중국 고전을 공부한 20세기의 중국 고전학자를 비교하면 누가 더 중국 고전에 정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대답은 자명하지 않은가?

영어 성경 번역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려서부터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과 그리스어 고전을 읽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고 암기하는 사람과 장성하여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배운 현대 학자를 비교하면 누가 더 원어에 정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다양한 오락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21세기의 현대인들과는 달리 15, 16세기에 학식 있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오락이 그리스어 놀이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과연 현대 원어학자들을 KJV가 출간되던 시대의 학자들과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고 그 당시 최고의 석학 57명이 모여서 번역 작업을 했다면 과연 누구를 신뢰해야만 할 것인가?

KJV 번역자들이 기술한 「역자들이 독자에게 드리는 글」(*The Translators To the Reader*)이라는 글을 통해 우리는 이들이 탁월한 학자일뿐만 아니라 훌륭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음을 잘 알 수 있다.

(1) 이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잘 알고 있었다.

진리가 없는 경건함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진리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경 기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성경기록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자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며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그것에 능숙하지 못한 자들은 책망을 받을 것이다.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2) 이들은 성경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성경은 무기이다. 단순히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 필요한 모든 무기이다. 여기에는 방어용 무기도 있고 공격용 무기도 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성경은 채소가 아니라 나무이며 매달 새로운 열매를 내는 생명나무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며 그 잎은 약이 된다. 성경은 그저 담아두기만 하는 만나 향아리나 한나의 기름 단지가 아니며 한두 끼 분의 양식이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쏟아져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이요, 기름 단지로 가득한 저장고와 같다. 이로써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이로써 우리의 빛이 탕감된다.

(3) 이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해야만 함을 잘 알고 있었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 주며 휘장을 찢어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 준다. 번역은 또한 우물의 뚜껑을 열어 우리가 물로 나가게 해 준다. 보통 사람들의 말로 번역을 하지 않을 경우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물 길을 그릇이 없이 우물가에서 있는 아이들과 같은 처지가 되고 말 것이다.

(4) 이들은 성경을 읽고 그 안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서 비늘을, 우리 마음에서 베일을 벗기신다. 또 우리가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의 지혜를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며 참으로 우리의 성정을 고치신다. 그 결과 우리는 금과 은보다 더 그것(말씀)을 사랑할 수 있으며 참으로 끝까지 그것을 사랑할 수 있다. 오 그토록 위대한 것들을 헛되이 받지 말며, 하나님의 그토록 큰 구원을 경멸하지 말라. 돼지들처럼 그토록 귀한 보물을 발로 짓밟지 말며 개들처럼 거룩한 것들을 물어뜯고 능욕하지 말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뻗으시고 부르실 때에 ‘오 하나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 [바로] 그것은 복된 일이며 우리를 결국 영존하는 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2.2 NIV, NASB 등 현대 역본 번역자들의 열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책을 저술하는 작가든,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든, 혹은

도자기를 만드는 예술가든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게 마련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성경은 열매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말씀이 구원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확신하고 번역에 임한 KJV의 역자들의 작품과 그에 반해 성경을 단지 하나의 고대 작품이나 신화 정도로 이해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자기 뜻대로 성경을 번역한 NIV 등 현대 역본들 편집자들의 작품이 어떨지 금방 판단해 볼 수 있다. 현대 역본 편집자들과 이들에게 본문을 제공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사상 및 생애는 이 책의 4장에 요약되어 있으니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현대 역본 편집자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려 한다.

- NIV의 주 편집자 팔머(Edwin Palmer)는 자신이 편집한 NIV가 가르치는 이단 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랑한다.

NIV는 현재 몇몇 정통 기독교회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 큰 오류, 즉 ‘거듭남이 오직 믿음에 달려 있으며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 잘못된 개념임을 보여 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분명한 구절은 사실상 성경에 거의 없다.

- 자신의 동료들에 의해 ‘서방 세계와 동방 세계의 중보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NASB의 창시자는 「동서양 저널」(*East-West Journal*)이 ‘새 시대 운동과 동서양의 합성을 위한 시작’이라고 칭했던 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새 역본의 편집자는 자신이 변경한 믿음의 신조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까지의 변화들 - 즉 자신이 변경한 것들 - 은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그것들은 반드시 새로운 신학의 보물들을 포함해야만 한다.

- ‘새’ 역본 편집자들이 그리스어 어원을 연구하기 위해 사용한 참고 사전은 히틀러의 추종자(게하르트 키텔, 루돌프 키텔의 아들)가 집필한 것으로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전쟁에 관련된 소송에 회부되어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인 것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NIV 편집위원회의 몰렌코트 박사(Dr. Virginia Mollencott)는 “동성연애(Lesbianism)는 항상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 왔다.”고 자랑스레 말한다(1991년 6월호 성공회 「위트니스」지). 그녀가 동성연애를 찬성하기 위해 저술한 「동성연애는 내 이웃인가?」라는 책은 성경이 ‘매춘’, ‘폭력에 의한 갱들의 강간’ 등과 같은 형사상의 범죄 행위들만을 책망하며, ‘동성끼리의 진실한 동성연애’는 책망하지 않는다는 그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사실 그녀의 이 같은 사상이 그대로 NIV에 반영되어 있다.

결국 ‘의(義)를 ‘부(副)로, ‘십자가’를 ‘왕관’으로, ‘새로운 창조’를 ‘모방’으로 대체한 ‘새로운’ 역본들로부터 ‘새로운’ 기독교가 태동되어 나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성경 역본들의 열매이다.

3. 킹제임스 성경 번역 방법의 우수성

3.1 KJV의 번역 방법

KJV 번역자들은 현대 역본 번역자들이 취한 번역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성경 번역 작업을 수행했으며 특히 팀워크를 이루어 번역을 했다. 57명의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번역했고 각 그룹은 두 조로 나뉘었으며 한 조의 인원은 대략 7명 정도였다.

- (1) 웨스트민스터 그룹(2개조) ; (2) 옥스퍼드 그룹(2개조) ; (3) 케임브리지 그룹(2개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KJV의 경우 각각의 번역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직접 번역해야 했다는 것이다. 즉 57명이 모두 자기가 맡은 것을 직접 번역해야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대 역본의 경우 편집위원 중에서 소위 실력이 있다는 몇몇 학자들만이 성경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번역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단지 이름만을 빌려주거나 혹은 기껏해야 교정을 보거나 다른 역본들과 비교하거나 하는 등 사소한 일을 한다.

그러나 KJV의 경우에는 57명의 모든 역자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직접 번역해야 했으며 그중 어떤 이들은 미처 번역을 끝내기도 전에 죽었으나 이런 경우에도 끝까지 남은 50여 명의 학자들이 그 작업을 인수하여 직접 번역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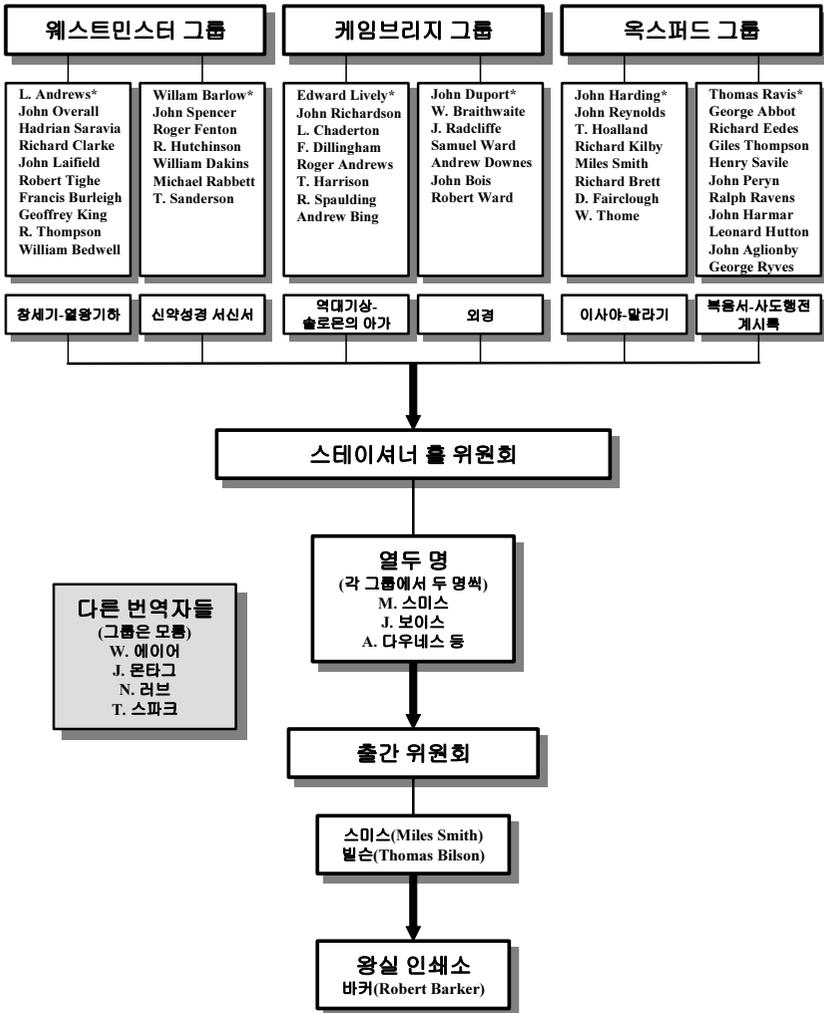
한편 이들은 팀워크로 일하면서 한두 사람만의 사사로운 의견은 배제하고 오직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만을 신실하게 옮겼다. 팀워크를 통한 번역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그룹의 첫째 조는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12권의 책을 번역했는데 최종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1) 이 조에 속한 7명 모두가 각각 12권 모두를 히브리어에서 영어로 스스로 번역해야 했다(이 과정에서 본문을 최소한 7번 읽어야 함).
- (2) 그 뒤 7명이 모여서 검토했다(최소한 1번을 같이 읽음).
- (3) 그 뒤 다른 조로 보냈다(나머지 다섯 조에서 최소한 5번을 함께 읽음).
- (4) 끝으로 각 조에서 두 명씩 선출하여 마지막으로 검토했다(이 과정에서 최소한 2번을 읽음).

이렇게 철저한 과정을 거치며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원어로 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적어도 14번 이상 검토하며 읽고 번역한 결과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즉 1611년 처음 발간된 이래 단 한 차례의 개정 작업도 거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게 되었다.

현대 역본 편집자들 중에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능통하여 스스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번역하고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또한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역본을 KJV의 역자들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한 14번 이상 읽고 검토했던 말인가? 이런 작업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NIV 등은 컴퓨터 시대에 출간되었지만 나오기가 무섭게 개정되고 있다. 마차에 원고를 싣고 다니며, 직접 손에 펜을 잡고 잉크로 글을 썼던 17세기 초반에 나온 성경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개정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무어란 말인가? 직접 번역을 해 본 사람이라면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될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 위원회>

우리는 결코 KJV 역자들이 완전한 사람들이라고 믿지 않는다. 단지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해서 자신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다고 믿는다.

성경은 처음 기록될 때부터 KJV로 번역될 때까지 불완전한 사람에 의해 기록되고 보관되었으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오셨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손 안에 들어 있는 필사본을 원본과 동일한 성경으로 읽고 인정하셨다.

3.2 KJV의 문자적 일치 및 형식적 일치 기법

KJV 번역자들은 ‘문자적 일치 방법’(Verbal equivalence method)과 ‘형식적 일치 기법’(Formal equivalence technique)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과 기법을 사용하면, 원어의 형식과 단어 자체가 거의 그대로 영어로 옮겨질 수 있다. 따라서 역으로 번역하게 되면 원래의 글로 되돌아가게 된다. 물론 원어와 수용 언어가 다르므로 이 기법을 항상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영어와 원어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문자와 형식의 일치를 이루려고 노력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다.

There is one God.

대다수 한국어 성경들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그럼 이것을 역으로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God is one person.

이제 원래의 영어 구절과 역으로 번역된 영어 구절을 비교해 보면 그 둘이 서로 완전히 다를 수 있다. 특히 역으로 번역된 영어 구절은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의 증인들의 교리를 증명해 주는 구절이 되고 만다. 즉, 그들의 주장대로 하나님은 한 분 즉 아버지 하나님만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한 분이 아니다. 삼위일체이신 그분은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세 분으로 되어 있으나 이 세 분이 하나이다. 따라서 이렇게 잘못 번역된 성경으로는 도저히 여호와의 증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문자와 형식의 일치를 이루는 번역이 될까? 그런 번역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한 하나님이 계시느니라(흠정역).

이렇게 번역하면 어색하지 않으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라. 그러면 이 같은 번역이 옳음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마귀들이 무엇을 믿고 떠는가? 대다수 한국어 성경대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떠는가?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대로 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떠는가? 그들이 떠는 이유는 자기들을 심판하실 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말로 조금 어색할지 몰라도 어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실 이것이야말로 성령님께서 기록하시고자 했던 내용이다.

한편 이 구절에 나오는 ‘한’(one)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I and my Father are one)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쓰신 바로 그런 의미의 ‘하나’(one)로서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이다.

위의 예를 통해 우리는 성경 번역에서 문자와 형식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KJV 역자들은 바로 이 같은 문자와 형식의 일치 기법을 준수하여 원어에서 영어로 있는 그대로 신실하게 번역했다.

3.3 NIV, NASB 등 현대 역본들의 동적 일치 기법

한편 대다수 현대 역본 편집자들은 문자와 형식의 일치를 무시하고 소위 ‘동적 일치 기법’(Dynamic equivalence technique)을 이용하여 성경을 번역했다. ‘동적’이라는 말이 ‘움직이는, 변하는’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이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역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형식에 상관없이 번역을 하게 된다. 특히 소설을 쓰듯이 자기 마음대로 문자를 바꾸어 뜻만을 전하는 번역을 우리는 ‘의역’이라고 하며 그 대표적인 예로 ‘리빙바이블’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동적 일치 기법’의 창시자는 누구일까? 이 기법을 최초로 도입한 인물은 바로 사탄 마귀였다. 동적 일치 기법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3.3.1) 변경

하나님께서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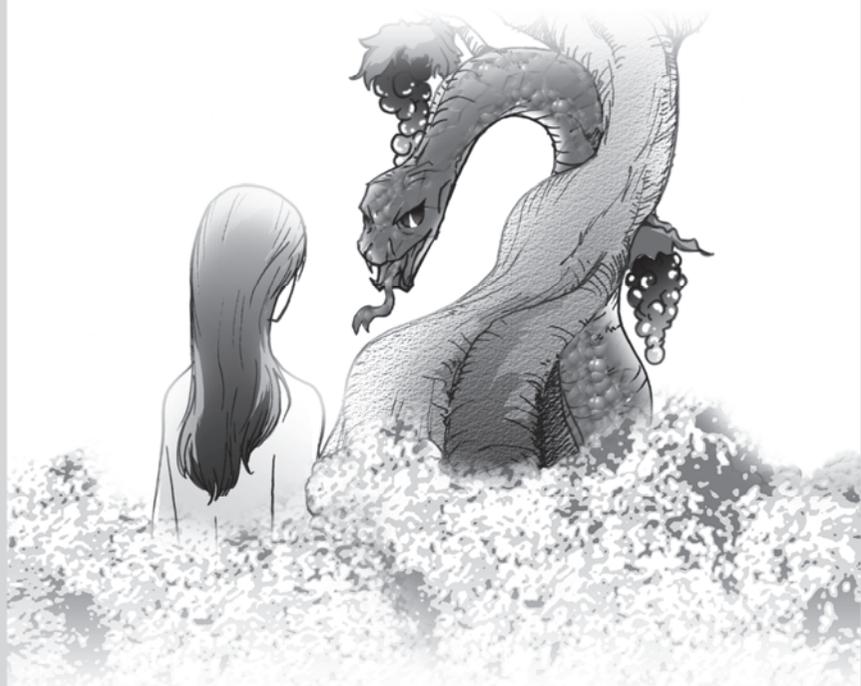
그런데 마귀는 창세기 3장 4절에서 이것을 변경하여 이렇게 말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히 그 열매를 먹는 날에 그들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였다. 이것이 바로 동적 일치 기법의 폐해이다.

의심과 혼동의 근원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3:1)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나요?

(3.3.2) 추가

하나님께서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귀는 창세기 3장 5절에서 이것에다 자기의 말을 추가하여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하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이 열린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최근에 이 같은 ‘동적 일치 기법’을 성경 번역에 도입한 장본인은 니다(Eugene Nida)이다. 그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미국성서공회, 연합성서공회 등을 위해 일해 왔으며 세상에 이 기법을 파급시킨 장본인이다. 그의 노력을 통해 1975년에 세계교회협의회(WCC)는 공식적으로 ‘동적 일치 기법’을 채택했고 그 뒤 1978년에 나온 NIV도 이 기법을 채택했다. 결론적으로 현대 역본을 위한 본문을 제공하는 연합 성서 공회(United Bible Society)는 이제 이 기법을 이용한 성경만을 출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동적 일치 기법’을 이용하여 말씀을 변경하고 가감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신4:2).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신12:32).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터인즉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30:5-6).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3.3.3) 추측

현대 역본의 저자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기법 중 하나는 추측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가 그들의 추측 번역 방법을 잘 보여 준다. KJV와 ‘전통 마소라 본문’은 창세기 4장 8절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KJV).

그런데 NIV는 이렇게 기록한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로 가자...(NIV)

히브리어 본문에는 NIV의 밑줄 친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구절이 성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 NIV 편집자 콜렌버거는 1979년에 발간된 「NIV Interlinear Hebrew-English」 에다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각주를 달았다.

여기 있는 히브리 본문과 번역은 참고 문헌 1번에 있는 여러 가지 초기 번역들을 기초로 해서 추측한 것이다.

이들은 실제의 본문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신학이나 신념에 맞게 추측하여 마음대로 성경을 뜯어고쳤고 「BHS」의 경우 구약에서만 약 20,000 군데를 수정하였다.

3.4 읽기 쉬운 성경

많은 광고들이 “KJV는 확실치 않으며 혼동을 일으키고 대개의 경우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킴킴한 혼동의 구름을 만들어 낸다. 반면에 그들은 NIV의 ‘읽기 쉬운 현대 영어’를 극구 칭찬한다. 단순한 사실을 가리기 위해 흑색선전용으로 제작된 전면 갈라 광고지들은 영어를 전공하지 않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압하고 있다.

그러나 플레쉬-킹케이드(Flesch-Kincaid) 연구사의 영어 등급 수준 지표는 새 역본들의 참 색깔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 주며 이 문제의 흑과 백을 엄격하게 드러낸다. 26 가지를 비교해 본 결과 KJV는 이 중 23 가지에서 새 역본들보다 더 쉬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들이 사용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등급 수준} = (0.39 \times \text{문장당 평균 단어 수}) + (11.8 \times \text{단어당 평균 음절 수}) - 15.59$$

물론 등급 수준이 낮을수록 문장이 쉽게 쓰인 것이다. 비교를 위해 먼저 신구약 성경의 첫째 책과 마지막 책의 첫 장들을 조사해 보았다. 이 경우에 마침표, 콜론, 세미콜론 등으로 끝나는 불완전한 문장들과 마침표로 끝나는 모든 구절을 문장으로 간주했다.

다음 표가 보여 주듯이 비교 결과 KJV가 다른 어떤 현대 역본보다 훨씬 더 읽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KJV의 등급인 5.8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수준이면 KJV를 읽을 수 있음을 뜻하고 NIV의 8.4는 미국 학제의 8-9학년, 즉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이라야 NIV를 읽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읽힘성에 대해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해 세 종류의 책들(복음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일반 서신서)에서 한 장씩을 뽑아 더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역시 KJV가 새 역본들보다 훨씬 더 읽기 쉽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플레쉬-킹케이드 영어 등급 수준 지표 1>

	KJV	NIV	NASB	TEV	NKJV
창세기 1장	4.4	5.1	4.7	5.1	5.2
말라기 1장	4.6	4.8	5.1	5.4	4.6
마태복음 1장	6.7	16.4	6.8	11.8	10.3
계시록 1장	7.5	7.1	7.7	6.2	7.7
등급수준평균	5.8	8.4	6.1	7.2	6.9

<플레쉬-킹케이드 영어 등급 수준 지표 2>

	KJV	NIV	NASB	GNMM (TEV)	NKJV
요1:1-21	3.6	3.6	4.2	5.9	3.9
갈1:1-21	8.6	9.8	10.4	6.7	8.9
약1:1-21	5.7	6.5	7.0	6.0	6.4

그렇다면 KJV가 다른 현대 역본들보다 훨씬 더 읽기 쉬운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KJV가 한 개나 두 개의 음절로 된 단어들을 사용하는 반면에 새로운 역본들은 여러 개의 음절로 된 복잡한 단어들과 구절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역본들의 어휘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단순한 구원의 소망을 보통 사람들에게 숨겨 버린다.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고(고후3:12)

단순하며 분명한 성경 구절에서 NASB는 낱빛의 검푸른 단어들을 사용하며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혼동을 일으키고 무엇인가 생색을 내는 듯한 어휘들을 사용한다. 이제 어린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정확성과 단순성’을 위해 KJV를 읽어야만 할 것이다. 새 역본을 추천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세뇌시켜 ‘거짓말을 믿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느 성경이 더 읽기 쉬운지 스스로 신중히 판단해 보아야만 한다.

3.5 외우기 쉬운 성경

이번에는 성경을 암송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경 구절이 적당한가?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시119:11).

성령님의 칼인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간단한 문장 구조와 한 음절로 된 단어들은 이같이 암송하는 일을 쉽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데 사탄은 죄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 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며 그래서 새 역본들의 경우에는 마귀에게 대항하기 위한 공격용 칼이 매우 어려운 단어들의 칼집 안에 갇혀 있다. 대개 새 역본들은 무엇을 말하려 할 때마다 KJV보다 두 배나 많은 단어나 음절을 사용한다. 다음은 KJV와 NASB를 간략하게 비교한 것이다.

이 표가 잘 보여 주듯이 NASB는 KJV에 비해 약 두 배나 많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역본들의 문장 구조를 ‘미로’(迷路)라고 부른다.

“NIV는 참 읽기 쉽다.”는 광고 역시 과대 선전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 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독자가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야만 하는 NIV의 복잡한 문장 구조 속에서는 어떤 단어를 외우거나 묵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게 된다.

<KJV와 NASB의 음절 수 비교>

NASB		KJV
Question those who have heard what I spoke to them (10 단어/11 음절)	요18:21	Ask them which heard me. (5 단어/5 음절)
Do not be afraid any longer but go on speaking (10 단어/11 음절)	행18:9	Be not afraid but speak (5 단어/6 음절)
you do not have any fish do you? (8 단어/9 음절)	요21:5	have ye any meat (4 단어/5 음절)
the prayer offered in faith will restore the one who sick (12 단어/ 14 음절)	약5:15	the prayer of faith shall save the sick (8 단어/8 음절)
flashes of lighting and sounds and peals of thunder (9 단어/12 음절)	계4:5	lightings, and thunders, and voices (5 단어/9 음절)
angel who had seven plagues which are the last (9 단어/11 음절)	계15:1	angels having the seven last plagues (6 단어/9 음절)
총 58 단어/68 음절		총 33 단어/42 음절

다음 표는 KJV와 NIV의 음절 수를 비교해서 보여 준다.

NIV의 경우 음절 수가 KJV의 3배나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런 복잡한 성경을 외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본 부록에서는 지면이 부족하여 성경 전체를 비교할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해 NIV의 어휘는 젊은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를 어렵게 만든다.

<KJV와 NIV의 음절 수 비교>

	NIV	KJV
출32:6; 고전10:7	indulge in revery (6)	rose up to play (4)
레14:2, 57	regulations for infectious skin diseases and mildew(15)	law of leprosy (5)
레11:30	skink (1)	snail (1)
고후2:2	conscripted (3)	told (1)
롬1:28	think it worthwhile (4)	like (1)
엡4:16	supporting ligament (6)	joint (1)
눅10:35	reimburse (3)	repay (2)
눅11:26	final condition (5)	last state (2)
총 음절 수	43	17

3.6 KJV 영어의 특징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을 전 세계적인 책으로 만드셨는데 사실 이 같은 계획은 21 세기에 새로 고안된 것이 아니다. 대영제국이 전 세계를 식민지화함에 따라 지난 400년간 KJV의 단어는 대륙에서 대륙으로 퍼져 나갔다. 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인도, 호주, 유럽, 캐나다, 러시아 등에 영국군이 주둔하면서부터 영국의 권력 및 문화의 영향 등으로 인해 수많은 학생들이 영문학을 배우게 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는 많은 외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미국식 영어가 아니고 영국 본토의 런던 토박이 영어이다.

사전 찾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친숙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KJV 안에 있는 8,000여 단어들로 구성된 영어야말로 새 역본들의 영어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정확하며 직관적이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3장 24절의 ‘가슴 옷’을 뜻하는 ‘stomacher’는 새 역본들이 번역한 대로 허리띠를 뜻하는 ‘belt’가 아니며 15~17 세기경의 여자들이 가슴에 입었던 옷이다. 새 역본들에 있는 좀더 ‘단순한’ 것으로

보이는 단어들은 사실 그 의미가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거나 부패된 그리스어 본문으로 부터 나온 것들이다. 새 역본들은 다니엘서 3장 7절에서도 KJV의 매우 간단한 단어인 하프(harp)를 훨씬 더 어려운 단어인 '지더'(zither)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KJV를 향상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어려움만 더해 준다.

보기에 친숙한 것 같지 않은 KJV의 단어들은 다음의 네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쉽게 해결할 수 있다.

1. 좋은 영어 사전을 사용하라. 어떤 단어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뜻을 알려면 「Oxford Unabridged, The Glossary of the Cambridge Interleaved Bible」 혹은 1828년 판 「The Americ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Noah Webster」 등을 사용하라.
2. 성경에 포함된 사전을 사용하라. 특히 한 단어가 여러 번 나타날 때 앞 뒤 문맥을 잘 살펴보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즉, 성경은 성경으로 풀리는 것이다.
3.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어를 처리하시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삼상9:1-11을 참고하라. 그분께서는 여전히 고어들을 그대로 두시되 성경에서 그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신다.
4. KJV에 있는 Thee나 Thou 등은 1611년의 영어가 아니고 성경 언어임을 기억하라. KJV가 번역되었을 당시 사람들이 대화할 때 사용하던 이런 단수 단어들은 이미 당신을 뜻하는 You로 대체되어 있었다. Thee, Thou, Thy, Ye를 You나 Your로 바꾸면 단수 (thee, thou, thy)와 복수(ye) 사이의 중대한 영적 차이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다(예를 들어 요3:7 등과 같은 구절). 또한 하나님, 예수님을 You로 부를 수는 없기에 존칭의 의미를 갖는 Thou 등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4. 킹제임스 성경 신학의 우수성

한마디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람의 구원, 교회, 천국, 천사, 지옥, 마귀, 성경,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등에 대한 절대 무오한 진리 - 이것을 정리하여 체계화하면 신학이 됨 - 를 담고 있는 책으로서 오직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성경은 신자들의 믿음과 실행의 모든 것을 재는 척도이다. 따라서 이 척도의 적합성 여부에 따라 믿는 바가 달라지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단들의 경우처럼 잘못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는 KJV 성경의 신학이 얼마나 우수함을 보여 주려 하며, 특히 본문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신학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많은 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 드러내려 한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KJV와 현대 역본들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비교를 위해 영어 본문도 함께 기록했다.

4.1 하나님론

KJV(요일5:7)	NIV 등 현대 역본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증언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라.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For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성경에서 이처럼 명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 주는 구절은 없다. 그런데 오직 KJV만이 이 구절을 지니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KJV를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 구절 때문이다.	

4.2 그리스도론

KJV(갈3:17)	NIV 등 현대 역본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the covenant, that was confirmed before of God in Christ, the law, which was four hundred and thirty years after, cannot disannul...	...The law, introduced 430 years later, does not set aside the covenant previously established by God...
KJV는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도 계셨고 구약 시대의 언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나 NIV 등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	

KJV(요3:13)	NIV 등 현대 역본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And no man hath ascended up to heaven, but he that came down from heaven, even the Son of man which is in heaven.	No one has ever gone into heaven except the one who came from heaven- the Son of Man.
KJV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이나 계신 분임을 보여 주나 NIV의 편집자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밑줄 친 부분을 제거하였다.	

4.2 그리스도론 계속

KJV(요일4:3)	NIV 등 현대 역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And every spirit that confesseth not that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is not of God: and this is that spirit of antichrist	but every spirit that does not acknowledge Jesus is not from God. This is the spirit of the antichrist
누가 이단인가?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셨다는 성육신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이 아닌가? 그런데 NIV는 육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KJV(눅2:33)	NIV 등 현대 역본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것들로 인하여 놀라워하더라.
And Joseph and his mother marvelled at those things which were spoken of him.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marveled at what was said about him.
요셉은 결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피를 받고 태어난 죄인이 되고 만다.	

KJV(눅4:8)	NIV 등 현대 역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기록된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And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u>Get thee behind me, Satan</u> : for it is written, Thou shalt worship the Lord thy God, and him only shalt thou serve.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예수님은 사탄에게 명령하사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NIV 등은 이 같은 예수님의 권세를 축소시키려 한다.	

4.2 그리스도론 계속

KJV(요1:18)	NASB 등 현대 역본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u>독생한</u> 하나님께서 그분을 설명 하셨느니라.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the <u>only begotten Son</u> ,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th declared him.	No man has seen God at any time; the <u>only begotten God</u> , who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s explained Him.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다. NASB 등에 따르면,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즉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이 된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한, 열등한 신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KJV는 예수님이 독생자 즉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KJV(롬14:10-12)	NIV 등 현대 역본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u>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u> 서리라...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u>하나님께</u> 회계 보고를 하리라.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u>하나님의 심판석 앞에</u> 서게 되리라...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u>하나님께</u> 회계 보고를 하리라.
...for we shall all stand before the <u>judgment seat of Christ</u> ...So then every one of us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u>to God</u>For we will all stand before <u>God's judgment seat</u> ...So then, each of us will give an account of himself <u>to God</u> .
참으로 묘하지 않은가? KJV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보여 주지만 NIV는 마음대로 본문을 고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4.3 교회론

KJV(계2:15)	NIV 등 현대 역본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u>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u> .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으니
So hast thou also them that hold the doctrine of the Nicolaitans, <u>which thing I hate</u> .	Likewise you also have those who hold to the teaching of the Nicolaitans.
여기 나오는 니골라당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로서 회중에게는 권리를 주지 않고 구약 시대 제사장처럼 일반 성도들을 통치하려는 자들이다. 신약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런 무리가 생겼으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이런 자들의 교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현대 역본들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삭제됨으로써 계급주의 및 교권주의 사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4.4 성경론

KJV(삼하21:19)	NIV 등 현대 역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베들레헬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한안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더니 거기서 베들레헬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한안이 골리앗을 죽였으니
And there was again a battle in Gob with the Philistines, where <u>Elhanan</u> the son of Ja'are-oregim, a Bethlehemite, slew <u>the brother of Goliath</u> the Gittite	In another battle with the Philistines at Gob, <u>Elhanan</u> son of Jaare-Oregim the Bethlehemite killed <u>Goliath</u> the Gittite
성경은 절대 무오한 책이다. 그런데 NIV, ASV, NASB 등은 다윗이 아니라 엘한안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기록하여 하나님 말씀의 무오성을 훼손한다.	

KJV(막1:2-3)	NIV 등 현대 역본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되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들을 곧게 하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되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As it is written <u>in the prophets</u> , Behold, I send my messenger before thy face, which shall prepare thy way before thee.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s straight.	It is written <u>in Isaiah the prophet</u> :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s for him.'"
이 구절은 말3:1과 사40:3에 있는 말씀을 마가가 인용한 것이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는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 아니며 이를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면 성경에 오류가 생기게 된다.	

KJV(막15:28)	NIV 등 현대 역본
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삭 제
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which saith, And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삭 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이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었으며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NIV 등은 이 같은 예언 성취 구절을 삭제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4.4 성경론 계속

KJV(벧전2:2)	NIV 등 현대 역본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u>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u> .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u>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u> .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u>순수한 젖을 사모할</u> 지니 이는 이로 <u>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서 자라게 하려 함이라</u> .
As newborn babes, desire <u>the sincere milk of the word</u> , that ye may <u>grow thereby</u> :	Like newborn babies, crave <u>pure spiritual milk</u> , so that by it you may <u>grow up in your salvation</u> .
<p>새로 태어난 신자들이 먹어야 할 순수한 것이 무엇인가? KJV는 그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런데 NIV는 이 사실을 숨기고 또 구원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구원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과정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p>	

4.5 구원론

KJV(요3:15)	NASB 등 현대 역본
이것은 누구든지 <u>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u> .	이는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That whosoever <u>believeth in him</u>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so that <u>whoever believes</u> will in Him have eternal life.
<p>NASB의 편집자들은 아무것이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KJV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p>	

KJV(계21:24)	NIV 등 현대 역본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곳으로 들어오리라.
And <u>the nations of them which are saved</u> shall walk in the light of it: and the kings of the earth do bring their glory and honour into it.	<u>The nations</u> will walk by its light, and the kings of the earth will bring their splendor into it.
<p>새 예루살렘 도시에서 걷는 민족들은 구원받은 민족들뿐이다. 그런데 NIV 등은 민족들이 그 안에서 걷는다고 기록함으로써 누구나 구원받는 것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p>	

4.6 속죄론

KJV(골1:14)	NIV 등 현대 역본
그분 안에서 우리가 <u>그분의 피를 통해</u>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In whom we have redemption <u>through his blood</u> , even the forgiveness of sins: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
KJV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음을 보여 주나 NIV는 이런 사실을 숨긴다. ‘현대인의 성경’, ‘리빙바이블’ 등의 현대 역본들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피를 제거하여 ‘피 없는 성경’이 되고 말았다.	

KJV(약5:16)	NIV 등 현대 역본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 죄들을 서로 고백하고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Confess <u>your faults</u> one to another, and pray one for another	Therefore confess <u>your sins</u> to each 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KJV는 성도들에게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NIV는 형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가르친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바로 이런 구절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고해 성사를 지지하고 있다.	

4.7 종말론

KJV(마25:13)	NIV 등 현대 역본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u>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u>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가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함이니라.
Watch therefore, for ye know neither the day nor the hour wherein <u>the Son of man cometh.</u>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그날과 그 시각을 수식해 주는 구절이 없으면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하겠는가? NIV는 결코 쉽게 번역된 것이 아니다. 단지 사람들을 혼동으로 이끌고 갈 뿐이다.	

4.8 심판론

KJV(골3:6)	NIV 등 현대 역본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For which things' sake the wrath of God cometh <u>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u> :	Because of these, the wrath of God is coming.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고 오직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만 임한다. 또 한 번 KJV는 현대 역본보다 훨씬 정확하다.	

4.9 부활론

KJV(막12:23)	NIV 등 현대 역본
그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런 즉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그 일곱 사람이 다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 여자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In the resurrection therefore, <u>when they shall rise</u> , whose wife shall she be of them? for the seven had her to wife.	At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since the seven were
NIV는 부활 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려 한다.	

4.10 지옥론

KJV(막9:44, 46)	NIV 등 현대 역본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삭 제
Where their worm dieth not,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삭 제
NIV의 편집자들은 무척이나 지옥을 두려워하므로 지옥을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이곳 외에도 신구약 성경에서 지옥을 지칭하는 곳의 대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음부, 스올 등으로 대체하였다.	

4.11 천국론

KJV(히10:34)	NIV 등 현대 역본
<p>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p>	<p>너희가 결박 중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긴 것은 더 좋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아라.</p>
<p>For ye had compassion of me in my bonds, and took joyfully the spoiling of your goods, knowing in yourselves that ye have in <u>heaven</u> a better and an enduring substance.</p>	<p>You sympathized with those in prison and joyfully accepted the confiscation of your property, because you knew that you yourselves had better and lasting possessions.</p>
<p>NIV 편집자들은 ‘하늘에’를 삭제함으로써 성도들이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워 버리고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영구한 소유를 얻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복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가? 인간의 기준에서 이것은 참으로 영구한 실체가 아니다. 하지만 그는 하늘에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분명히 알았다.</p>	



사본들의 99%가 킹제임스 성경 지지

최근에 어떤 분이 신약 성경 사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의 모체인 전통 본문(Traditional text, 공인 본문, 다수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이 전체 사본의 99%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려달라고 해서 오늘은 이에 대해 글을 적습니다.

사본(manuscript)이라는 말은 손으로 베껴 쓴 책이나 문서를 말하며 어떤 경우에는 필사본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고대 번역본(라틴어 역본 10,000개, 다른 역본 9,300개)을 포함해서 약 25,000개의 사본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비평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어로 기록된 사본들이며 이 경우 신약 성경 사본의 수는 현재 약 5,800개 정도 됩니다.²⁾

이런 사본들 가운데 신약 성경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사본들이 발견됨에 따라 사본의 수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리스어 사본은 크게 4종류로 나눕니다.

1. 파피루스 사본
2. 그리스어 대문자(영철) 사본
3. 그리스어 소문자(커시브) 사본
4. 성구집 사본

여기서 파피루스 사본과 대문자 그리고 소문자 사본은 성경의 본문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기록한 '연속 본문 형태의 사본'입니다. 반면에 성구집은 성구 묵상집으로서 매일 혹은 매주 읽어야 할 성경 본문이 적혀 있는 '비연속 본문 형태의 사본'입니다.

그리스어의 경우, 초기에는 대문자만 쓰이다가 7-8세기경에 소문자가 정착되면서 9세기 이후에는 소문자가 대문자를 대체하게 됩니다.

성구집의 경우 초기 것은 대문자로, 9세기 이후의 것은 소문자로 기록되었지만 이 둘을 모두 합쳐 그냥 성구집 사본이라고 합니다.

대문자 사본과 소문자 사본은 대개 벨럼이라 불리는 양피지 가죽에 책(codex)의 형태로 기록되었기에 코덱스(codex) 사본이라고 합니다. 성구집을 설명하면서 이야기 기렸듯이, 양피지에 기록된 사본들의 경우도 대개 대문자 사본은 초기의 것이고 소문자 사본은 후기의 것입니다.

한편 파피루스 사본은 4세기 이전의 초기에 기록된 대문자 사본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기록 재질이 다르므로 대문자 사본이라 하지 않고 그냥 파피루스 사본이라고

²⁾ https://en.wikipedia.org/wiki/Biblical_manuscript

합니다. 대부분의 파피루스 사본은 이집트에서 발견되었고 영지주의 색채가 배어 있습니다.

무어맨 박사(Dr. Jack Moorman)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8월까지 발견된 그리스어 사본들의 수는 5,555개입니다.³⁾

1. 파피루스 사본 124개
2. 대문자 사본 280개
3. 소문자 사본 2808개
4. 성구집 사본 2343개

현재는 이보다 조금 늘어났고 이것들의 최근 명단은 위키 백과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⁴⁾

그런데 5,500여 개 사본 중에서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되는 비평 본문(Critical text, 소수 사본)을 지지하는 것은 약 40개에 불과합니다. 이것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이며 사실 나머지는 여러 부분에서 이 둘을 지지할 뿐입니다.

독일의 알란트(알란트)와 같이 비평 본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증거에서 많은 증거를 만들어 내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꾸준히 늘 인용되는 증거들’(The constantly cited witnesses)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늘립니다.

‘네슬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 성경’ 27판 혹은 28판에 보면, 알란트는 자신의 비평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 1등급(자주 인용되는 사본들), 2등급(자주 인용되는 사본들), 3등급(가끔 인용되는 사본들) 증거 사본들이라는 기법을 제시합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27권 책들에 대해 1등급 증거들 즉 ‘꾸준히 늘 인용되는 증거들’이라는 사본들의 명단을 제시합니다.

3) 「현대 성경들에서 사라진 것들」(*Missing in Modern Bibles*), 35쪽 이하. 이 책은 KeepBible.com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음(사이트의 우측 상단 상세 검색에서 ‘사본들의 압도적인 증거’라고 치면 관련 기사가 나오며 맨 밑에 PDF 파일이 있음).

4) 1. 파피루스 사본 리스트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New_Testament_papyri

2. 대문자 사본 리스트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New_Testament_uncials

3. 소문자 사본 리스트
https://en.wikipedia.org/wiki/Lists_of_New_Testament_minuscules

4. 성구집 사본 리스트
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New_Testament_lectionaries

다음 그림은 2016년 3월, 대한성서공회에서 펴낸 <네스틀레 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한국어 서문판>의 한국어 서문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알란트의 정의에 따르면, 신약의 한 책에 대해 1등급으로 분류된 사본은 다른 책에 대해서는 1등급 증거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본이 마태복음에서만 전통 본문(다수 본문)과 10% 정도 다르고 - 10%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름 - 다른 책들에서는 전통 본문과 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본의 경우 마태복음에서만 전통 본문(다수 본문)과 10% 정도 다르므로 사본 전체로 보면 전통 본문과 다른 부분이 1%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알란트는 이런 사본을 마태복음에 대한 1등급 증거라고 분류합니다.

26* 그리스어 신약성서 서문

a) 늘 인용되는 증거들
 b) 자주 인용되는 사본들
 c) 가끔 인용되는 사본들

다음 목록에는 늘 인용되는 증거들과 자주 인용되는 증거들만 열거해 놓았다. 가끔 인용되는 사본들은 <부록 1>에 있는 사본 목록표에만 표시해 놓았다.

복음서의 본문비평에 늘 인용되는 증거들

고려되는 모든 파피루스 사본들:
 마태복음: P¹, P¹⁹, P²¹, P²⁵, P³⁵, P³⁷, P⁴⁴, P⁴⁵, P⁵³, P⁶², P⁶⁴⁺⁶⁷, P⁷⁰, P⁷¹, P⁷³, P⁷⁷, P⁸³, P⁸⁶, P⁹⁶, P¹⁰¹, P¹⁰², P¹⁰³, P¹⁰⁴, P¹⁰⁵, P¹¹⁰;
 마가복음: P⁴⁵, P⁶⁴, P⁸⁸;
 누가복음: P³, P⁴, P⁷, P⁴², P⁴⁵, P⁶⁹, P⁷⁵, P⁸², P⁹⁷, P¹¹¹;
 요한복음: P², P³, P⁵, P⁶, P²², P²⁸, P²⁶, P³⁹, P⁴⁴, P⁴⁵, P⁵², P⁵⁵, P⁵⁹, P⁶⁰, P⁶³, P⁶⁶, P⁷⁵, P⁷⁶, P⁸⁰, P⁸⁴, P⁹⁰, P⁹³, P⁹⁵, P¹⁰⁶, P¹⁰⁷, P¹⁰⁸, P¹⁰⁹, P¹¹⁹, P¹²⁰, P¹²¹, P¹²².

대문자 사본들:
 마태복음: N(01), A(02), B(03), C(04), D(05), K(017), L(019), N(022), P(024), W(032), Z(035), Γ(036), Δ(037), Θ(038), 058, 067, 071, 073, 078, 085, 087, 094, 0102, 0106, 0107, 0128, 0148, 0160, 0161, 0170, 0171, 0204, 0234, 0237, 0242, 0249, 0271, 0275, 0277, 0281, 0293, 0298;
 마가복음: N(01), A(02), B(03), C(04), D(05), K(017), L(019), N(022), P(024), W(032), Γ(036), Δ(037), Θ(038), Ψ(044), 059, 067, 069, 072, 083, 087, 099, 0107, 0126, 0130, 0131, 0132, 0143, 0146, 0167, 0184, 0187, 0188, 0213, 0214, 0269, 0274, 0292;

문의 짜임새가 코이네(Koine) 본문 유형에 속하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본문사적으로 또는 주석적으로 흥미 있는 곳에서 코이네 본문과 다른 경우에만 제시된다. 사본의 짧은 토막에 나타나 있는 결합들(예를 들면 물로 생긴 얼룩, 희미해진 글씨, 필기 재료의 훼손)에 관해서는, 지면의 제한 때문에 일일이 표시할 수 없으므로, 몇몇 경우에는 ‘늘 인용되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m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이 비평본의 본문과 일치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알란트의 ‘늘 인용되는 증거 사본들’ 설명>

이런 식으로 그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등 총 27권에 대해 1등급 증거를 분류합니다. 다시 말해 비평 본문 지지자들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여 자기들의 비평 본문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본들의 수를 늘립니다.

그런데 기껏 이렇게 부풀려서 알란트와 그의 추종자들이 얻은 1등급 증거의 수는 총 40개 정도입니다(단편 사본 말고 웬만한 양을 담고 있는 증거들).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 책에 대해 한 사본이 전통 본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야 1등급이 되는지를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은 그들만의 비밀 리그에서만 운영됩니다.

알란트 등이 이런 방식으로 1등급 증거 사본들을 분류한 결과, 마태복음이 이런 증거 사본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스레/알란트 그리스어 신약 성경’ 27판의 경우 그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피루스 사본 (18개)
2. 대문자 사본 42개
3. 소문자 사본 19개
4. 성구집 사본 0개

여기서 파피루스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문자 사본 42개와 소문자 사본 19개 역시 어떤 기준으로 - 전통 본문에서 몇 퍼센트 벗어나야 1등급 증거 자료가 되는지 여부 - 선정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성구집 리스트(위키 백과)를 보면 알지만, 성구집은 거의 100% 전통 본문을 지지합니다. 이것은 사본 학계에 다 알려진 매우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알란트 등은 자기들에게 불리하므로 이런 자료는 그냥 다 무시해 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알란트 등이 ‘꾸준히 늘 인용되는 증거들’ 기법을 사용해서 부풀려 만든 1등급 증거는 겨우 40-50개 정도이고 이는 전체 사본의 1%가 채 안 되는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 소수 본문을 지지하는 증거 사본들이 전체 사본의 1%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알란트의 기법에 대해 저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은 2016년 3월, 대한성서공회에서 펴낸 「네스틀레 알란트 그리스어 신약성서 한국어 서문판」을 사서 한국어 서문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천주교 소수 사본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소수 사본 지지자들이 추앙하는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은 자기들끼리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수두룩합니다.⁵⁾

위키 백과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이 두 사본은 사복음서에서만 무려 3,036개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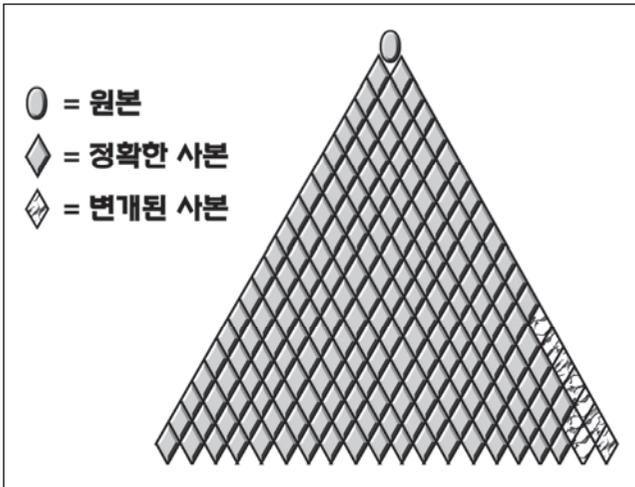
⁵⁾ https://en.wikipedia.org/wiki/Comparison_of_codices_Sinaiticus_and_Vaticanus

서로 다릅니다(마태복음 656개, 마가복음 57개, 누가복음 791개, 요한복음 1022개). 물론 이것 역시 이미 사본 학계에 공공연하게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러한 소수 사본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사본을 신뢰해야 한단 말입니까?

시내 사본은 특히 여러 곳에서 조작된 부분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시내 사본 조작에 대해서는 이 책의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40여 개의 소수 본문을 제외한 99%의 안디옥 계열 사본들(다수 사본, 종교개혁 사본, 보편적 사본, 비잔틴 사본, 전통 사본)은 어느 것을 보아도 본문이 일정합니다. 바로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과 루터 성경 등이 나왔고 이러한 다수 사본 성경들이 전 세계의 신학과 교리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원본, 정확한 다수 사본, 변개된 소수 사본>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12구절 조작

개역성경의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어떤 사본에는 9-20절까지 없음”이라는 각주가 붙어 있다. 다른 설명을 보면 “9-20절 단락은 아주 오래 된 사본들에는 빠져 있으며 이 부분은 2세기에 덧붙여졌음”이라고 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NIV, NASB 등 모든 현대 역본들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현대 역본들의 주장이 사실이고 따라서 마가복음 16장이 8절에서 끝난다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떨며 놀라서 급히 도망하고 두려움에 잠겨 숨어 지낸 셈이 된다. 그러면 이게 과연 ‘복된 소식’ 즉 복음일까? 이것은 결코 사본학을 들먹일 문제가 아니다. 누구라도 상식을 가지고 20절 전체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9-20절 즉 마지막 12구절이 있어야만 함을 알 수 있다.

1-8절은 천사가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자 그들이 놀라서 떨며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함을 기록하고 있다. 9-12절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신 것을 기록한다.

¹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 두었더라. ²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 돋을 때에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³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고 ⁴ 바라볼 때에 돌이 이미 굴려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⁵ 그들이 돌무덤에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⁶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님을 찾았구나. 그분은 일어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그분을 두었던 곳을 보라. ⁷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분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볼 것이라고 고하라, 하니라. ⁸ 그들이 떨며 놀라서 급히 나와 돌무덤에서 도망하고 두려워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⁹ ¶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일곱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¹⁰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¹¹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녀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 ¹⁵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¹⁶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¹⁷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¹⁸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인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19 ¶ 이렇게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20 그들이 나아가서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사본들의 압도적 증거

현존하는 그리스어 사본들 가운데 마가복음 16장을 포함하는 사본은 약 1,800개 이고 이 중에서 1,797개가 9-20절을 포함한다. 즉 현존하는 그리스 사본들의 99.8%인 절대 다수가 마가복음 16장 9-20절을 포함하고 있다. 이쯤 되면 심지어 세상 법정에서도 절대 다수의 증거가 채택되어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을 담은 성경이 바른 성경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현대 역본 지지자들이 마가복음 16장 9-20절이 원래 없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바로 밑에 있는 시내 사본이다. 이 사진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9-20절은 분명히 원래 사본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것들을 지우고 그 위에 무언가를 기록하였다. 이런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온 세상 모든 성도들에게서 마가복음 16장 9-20절을 빼앗아가려는 자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혹시 그들은 마귀의 앞잡이는 아닌가?⁶⁾

6) 이 사진은 영어 Google에 가서 'Sinaiticus Mark 16'이라고 치면 이미지 섹션에서 누구라도 즉시 쉽게 찾을 수 있다.

킹제임스 성경 지지 도서 및 성경 연구 자료

국내의 명망 있는 신학자들 중에서도 바른 사본을 지지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또한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참조용 성경으로 곁에 두고 설교와 강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성경 이슈와 관련하여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는 호주 목회자 키이쓰 파이퍼의 책을 이항로 박사(미국 West Coast Baptist College 교수)가 번역하고, 이기석 전 뉴저지 새순교회 목사와 이광복 광신대 교수이자 환돌선교센터 원장이 감수했으며, 전 총신대 및 대신대 총장 정성구 박사가 추천한 책입니다(도서출판 환돌, 453쪽).

정성구 박사는 은퇴했으나, 지금도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종교개혁 정신의 함양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고, 그들이 말한 성경은 루터, 칼빈, 틴데일의 뒤를 이어 제네바 성경 및 킹제임스 성경으로 결실을 이룬 종교개혁 성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성구 박사님의 추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이기석 목사님으로부터 이 책을 받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었습니다. 20여 년 전 저는 미국 뉴저지 주에서 목회하시던 이 목사님 초청을 받아 부흥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이 목사님께서서는 전수 사본(Received manuscripts) 즉 공인(共認) 본문(Textus Receptus)에서 번역된 영어 성경만이 참된 성경이라고 힘주어 말했고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이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에서 〈킹제임스 성경〉, 〈틴데일 성경〉, 〈루터의 독일어 신약 성경〉, 칼빈이 주도한 〈올리베탕 프랑스어 신약 성경〉, 또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이요, 청교도들의 성경이며 미국 건국의 성경이었던 〈제네바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저는 평생 종교 개혁자 요한 칼빈과 칼빈주의 사상을 연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과 박물관에는 사본학과 관련된 여러 종류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어느 사본, 어느 본문으로, 어떤 신학적 입장에서 번역했는가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네바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은 그 당시 종교개혁의 정신인 ‘오직 성경’(Sola Scriptura) 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정신 위에 그리스어 본문인 공인 본문(TR)을 바탕으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의 영역 성경들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주의, 뉴에이지, 로마 카톨릭 주의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적인 인본주의 사상으로 성경 번역에 심대한 오류를 범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위대한 학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같은 이들이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본문을 재구성한 것을 철저히 믿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이단이며 가장 잘못된 사본을 사용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안목으로 번역해 버린 그들은 도리어 기독교 신앙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 자들입니다.

이 책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은 영어 역본들을 사본과 정확히 대조하면서 참된 번역과 잘못된 번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매우 학문적이며 사본학의 근원을 파헤치는 역작이라 생각합니다. 바라는 이 책이 신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목회자와 모든 신학생들에게 두루 읽혀 성경 교육과 설교에 크게 유용하게 쓰이기를 바라면서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정성구 박사).

신약 분석 성경

2008년 5월, 송중섭 박사는 <신약 분석 성경>이라는 역작을 신약 원어 연구소를 통해 출간하였습니다. 총 827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신약 성경 전체를 원어와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하고 동시에 개역성경에서 오역되거나 삭제된 부분을 모두 표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책을 내려면 수십 년간의 연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중섭 박사는 생략 및 삭제를 보충하고 오역을 정정하며 의역도 수정하고 문장 번개를 수정하며 심지어 단복수까지 철저히 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생략과 오역은 적색으로 개정과 수정은 청색으로 그리고 정확한 번역은 흑색으로 구분하여 누구나도 정확하게 성경 본문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다음 페이지 그림 참조).

송중섭 박사는 한국 교회의 미래를 두고 오랜 연구 끝에 이 책을 발간하였고 또 한국의 보수 교단이 8년 6개월에 걸쳐 완성한 바른 성경은 신학적 전제를 가지고 번역하였기에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총신대학교 총재이셨던 박아론 박사님의 추천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대한성서공회의 개역성경을 표준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번역의 정확성 문제로 논란이 일어나면서 여러 종류의 성경이 번역 되었고 대한성서공회도 개역판 성경번역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역개정판 성경전서를 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번역의 정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여러 종류의 성경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으로 본인의 제자였던 송중섭 박사가 <신약분석성경>을 번역하고 발간하였습니다.

<신약분석성경>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헬라어 원전을 직역하였고 둘째로 중요한 단어마다 한헬영대역을 하였으며 셋째로 개역판 신약전서를 언어학적으로 검증하여서 정확한 번역과 정확하지 못한 번역을 분석한 후 정확하지 못한 번역은 한헬영대역으로 정정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눈으로 번역의 문제점들을 알 수 있도록 생략 및 오역은 적색으로, 수정은 청색으로 그리고 바른 번역은 흑색으로 편집하였고 문제된 번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필요시에 권위 있는 여러 종류의 영어성경을 예문으로 제시하여서 증거를 담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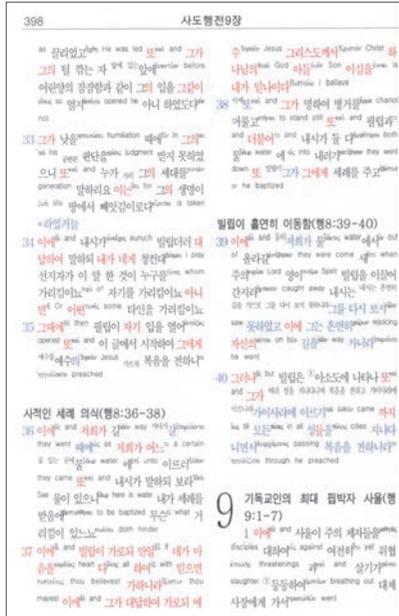
<신약분석성경>의 발간으로 한국 교회는 그동안 잘못된 번역으로 말씀을 왜곡하였던 말씀의 암흑시대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본인의 문하생이 이와 같은 <신약분석성경>을 번역한 것에 대하여 크게 치하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를 널리 애용하기를 바랍니다.

개역성경과 헬라어 표준 원문⁷⁾ 비교 연구

1996년 9월, 한중수 목사는 기독교 문서 선교회를 통해 <개역성경과 헬라어 표준 원문 비교 연구>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한중수 목사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 영어과와 총회 신학교 신학 연구원 과정을 졸업한 뒤 미국의 침례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목회를 하였습니다. 이 책 서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개역성경은 영감성이 뛰어나고 믿음으로 번역한 훌륭한 성경이지만 그 본문은 유감스럽게도 1881년에 번개된 영어개역성경 계열이어서 본문 내용이 표준 원문과



7) 표준 원문은 공인 본문 즉 그리스어 신약성경 본문인 'Textus Receptus'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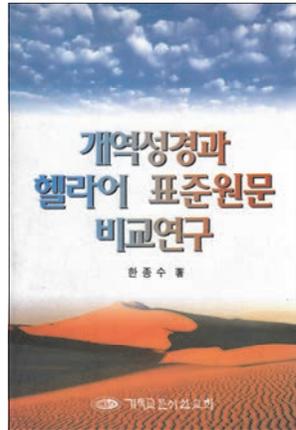
그것의 번역판인 틴데일 성경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과 너무나 틀리다. 그리하여 정확한 성경을 우리 시대에 확정지어 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책의 원고를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표준 원문의 일부분을 번역하면서 성경이 정확할 때 성경은 상당히 명료하여 누구든지 읽을 수 있고 어려운 해석을 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예 계:8:13)⁸⁾. 앞으로 표준 원문 성경의 필요성을 느끼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표준 원문에서 성경을 번역하여 사용하는 때가 한국 교회에 오는 날 이 책 출판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220쪽의 이 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다룹니다.

1. 표준 원문에는 있으나 개역성경에서 빠진 부분
2. 표준 원문에는 없으나 개역성경에 추가된 말들
3. 새로운 번역 제안
4. 현대 성경 번역의 특색과 그 공통점들
5. 성경 번역과 뉴에이지 운동

충신대 학장을 지내신 김희보 박사님은 다음과 같이 추천사를 써 주셨습니다.

10여 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가셨던 한중수 목사님, 지금은 미국 Covenant Bible Seminary의 교수로 계시면서 워싱턴 주 타코마에서 교포 교회를 목회하시는 그가 정성을 들여 연구한 원고 <개역성경과 헬라이어 표준 원문 연구>를 읽고 고맙고 기쁜 마음으로 추천서를 쓰게 되었다. 그의 이 '연구 작품'은 앞으로 성경을 번역하려는 우리 교계와 또 성경 번역에 관심이 많은 자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좋은 연구서이다.



먼저 저자는 성경 번역에 있어 어떤 원문 사본을 근거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절실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그의 연구 범위는 헬리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에 대한 것으로 그는 먼저 한글개역성경을 포함하여 역대의 모든 현대 역들을 표준 원문(Textus Receptus)을 수정하고 가감하고 변화시켜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과 시내 사본(Codex Sinaiticus)에 거의 같게 만든 1881년에 그 내용이 많이 바뀐 '웨스트코트-호르트(Westcott-Hort)의 헬라이어 성경'과 영어개역성경 그리고 내솔판 헬라이어 성경을 거쳐 연합성서공회의 헬라이어 원문을 대본으로 한 것임을 말했다.

여기에는 우리의 한글개역성경과 더불어 RSV(1946), NRSV(1987)와 또 우리가

8) 개역성경: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보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킹제임스 성경: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세 천사가 불게 될 또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보다! 하더라.

지금 많이 읽는 NASB와 NIV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대 역들의 대본인 'Nestle판 원문 성경'과 '연합성서공회의 헬라어 원문 성경'은 이른바 표준 원문(Textus Receptus)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1516)은 표준 원문(TR)의 최초 인쇄본이요, 그 사본을 보완하여 최초로 장과 절을 구분하여 출판된 것을 '스테판 그리스어 신약 성경'(Stephanus Greek New Testament)(1551, 4판)이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대본으로 하여 번역된 성경들은 틴데일 성경(1535), 제네바 성경(1560), 루터의 독일어 성경(1522) 등을 거쳐 킹제임스 성경(1611)에 이르게 됐다.

지금 우리의 한글개역성경을 위시하여 NASB, NRSV, NIV 등은 킹제임스 성경, 틴데일 성경, 'Robert Young의 직역 성경'들과 비교하여 볼 때 많은 부분들이 삭제되고 틀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원본 대본'의 차이에서 생겼음이 확실하다.

그런데 본 연구 작품은 한글개역성경을 표준 원문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제시하여 그 우열을 가리며 분석한 데 그 특색이 있다. 그 차이점을 밝힌 것이 4복음서에만 도 230여 곳이요, 로마서에서 계시록까지 400여 곳에 이른다. 본서는 현대 번역 성경들의 특색과 공통점을 밝혀 성경 번역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힘을 썼다.

이 연구 논문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과 앞으로 새로이 성경 번역에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꼭 한 번 읽어 보고 검토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은 책이다. 부디 한중수 목사님의 성경 번역에 대한 이 연구가 앞으로 한국 교회의 성경 번역에 큰 유익이 되기를 삼가 바라마지 않는다(김희보 박사 추천사).

우리말 성경 연구

한국 교계에서 성경 번역의 최고봉을 들라고 하면 장로교 신학대 대학원장을 지내신 나채운 교수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1990년 나채운 교수는 성경 번역사에 길이 남을 고전 <우리말 성경 연구>를 출간하였습니다(기독교문사 1996년 2쇄).

작은 글씨로 무려 714쪽에 기록된 내용은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참으로 유용합니다. 나채운 교수는 “우리말 성경으로 설교하고 가르치시는 한국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모든 신학생들에게 이 책을 드린다”고 헌정사를 기록하였습니다. 나채운 교수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서문을 통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을 읽어서 그 말씀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행위에 관한 정확 무오한 유일한 규범'이기 때문이다. 즉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란 말이다.

한국 교회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개인의 성경 읽기나 교회에서의 성경공부의 실체를 보면 거기에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 교역자들 중에는 교인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강조만 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으니, 교인들은 무턱대고 성경(대개는 어려운 개역성경)을 많이 읽기만 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다.

성경 공부를 할 때에는 많은 경우에 성경이 처음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등을 가르치는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이, 그저 성경 본문을 공부하는 것으로만 그친다. 성경 본문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거리가 개역성경 하나만을 교재로 할 뿐 우리말 성경 새 번역(신약전서)이나 공동번역을 참고로 하거나 비교 대조도 하지 않는 실정이다. 더구나 관주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주 성경에 있는 참고 사항(구약 인용, 여러 가지 난해주 및 참조 관주 등)을 이용하는 교역자나 교인은 거의 없다.

이상과 같이 우리말 성경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말 성경(대개의 경우 개역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번역상의 문제점(오역 등)을 모르고, 그 본문 그대로를 가지고 설교도 하고 성경공부도 하여, 때로는 성경의 원문과는 다른 뜻으로 설교하고 가르치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이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상과 같은 실정인지라, 저자가 봉직하고 있는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과정에서 몇 해 전부터 <우리말 성경 연구>라는 과목을 두어, 우리나라 교역자들이 그들의 교역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 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과 문제점들을 가르치고 있다.

본서는 처음, 저자의 강의에 필요한 교재로서 시도되었으나, 써 나가는 중에 한국의 전체 교인들의 성경공부를 위한 배려도 하게 되었다.

본서의 주요 부분은 세 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은 우리말 성경 번역의 역사, 제2편은 우리말 성경에 관한 해설, 제3편은 우리말 성경 번역에 대한 비판이다. 그리고 부수적인 것으로서 제4편에서는 이상의 세 분야에 관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말 성경의 이해를 위한 부록을 실었다.

본서가 한국 교회의 교역자들이 그들의 실제적인 목회에서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나 성경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또 평신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활용되어 우리말 성경을 더 깊이,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저자의 기쁨은 더할 나위가 없겠다.

끝으로 수고해 주신 조선근 장로님, 그리고 교정의 수고를 해주신 장영수 전도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나채운 교수의 명작 <우리말 성경 연구>는 교회의 성경 공부 시간에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세밀히 다루고 있습니다.

1. 우리말 성경은 언제, 누가, 어떻게 번역하였는가?
2. 우리말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색은 무엇인가?
3.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어떻게 변천 발전되어 왔는가?
4. 우리말 성경에는 어떠한 종류와 형태가 있는가?
5. 우리말 성경에는 어떠한 특수 번역판이 있는가?
6. 개신교 이외의 성경 번역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7. 우리말 성경 번역은 얼마나 원어(헬라어, 히브리어)에 충실한가?
8. 우리말 성경 번역은 얼마나 당시의 영어역 성경의 영향을 입었는가?
9. 우리말 성경 번역은 얼마나 당시의 중국어역 성경의 영향을 입었는가?
10. 우리말 성경 번역은 얼마나 당시의 일어역 성경의 영향을 입었는가?
11. 우리말 성경 개역, 새번역, 공동번역의 실제적인 차이는 어떠한 것인가?
12. 우리말 성경의 번역과 출판 현황은 어떠한가?
13. 우리말 성경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14. 우리말 성경 본문 중에 있는 작은 글자, 묶음표 및 부호는 무엇을 뜻하는가?
15. 우리말 관주 성경 안에 있는 관주나 난하주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16. 우리말 성경에는 문법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17. 우리말 성경에는 어휘 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18. 우리말 성경에는 한자 사용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19.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 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20. 번역어로서의 우리말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말 성경 연구〉 전체 본문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제3편은 기존 우리말 성경의 다양한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므로 설교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매우 큰 유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용어 정리

성경 이슈를 논하려면 몇 가지 용어를 정리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 책에서 자주 보게 되는 용어들 가운데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이 외에 필요한 것들은 독자께서 시간을 내서 조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⁹⁾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 파피루스(Papyrus): 파피루스는 종이 발명되기 이전에 필기 용도로 사용되던 종이와 비슷한 매체로서 사초과(莎草科 Cyperaceae)에 속하는 동일한 이름의 파피루스(Cyperus papyrus) 식물의 잎으로 만들어졌다. 다음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파피루스 식물은 이집트의 나일 강 삼각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필기 용도로 쓰기 위해 자루나 줄기를 모았고 가운데 수(髓) 부위를 얇고 긴 조각으로 잘라 압착하여 말린 뒤 매끄럽고 얇은 필기 용지를 만들었다. 파피루스는 풀처럼 생긴 수생 식물로서 목본성의 무딘 3각형 줄기를 가지며 깊이가 90cm 정도인 잔잔하게 흐르는 물에서 4.6m 높이까지 자란다. 지금도 따뜻한 지역에서는 이것을 연못에 관상용으로 심거나 온실에서 기르곤 한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파피루스 줄기를 돛·천·방석·뱃줄·종이를 만드는 데 썼다.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의 주요한 문방구였는데 후에 그리스 사람들이 이것을 도입하였고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것은 두루마리 형태의 책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문과 법률 공문서를 기록하는 데도 쓰였다.

플리니우스는 다음과 같이 파피루스로 종이를 제조하는 법에 대해 기술하였다: 줄기 속의 섬유 층을 제거하고 세로로 길쭉한 조각으로 잘라 이들을 나란히 놓은 다음 그 위에 다른 조각들을 직각으로 교차시킨다. 이렇게 2층으로 쌓은 시트를 풀이 죽게 압축시킨다. 말리는 동안 야교 같은 수액(樹液)이 시트를 서로 접착시킨다. 마지막으로 시트를 망치로 두드린 다음 햇볕에 말린다.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는 순백색을 띠며 잘 만들어진 것은 반점·얼룩 및 다른 결함 등이 없다. 두루마리의 경우 시트를 풀로 붙여 만드는데 대개 하나의 두루마리에 시트가 20개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다. 파피루스는 8-9세기에 다른 식물 섬유로 종이를 제조하기 전까지 이집트 사람들이 필기 용도로 사용하였다. 3세기경에

9)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이 출간한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와 맨 끝에 있는 추천 참고 도서를 참조하기 바람.

이르러 유럽에서는 파피루스가 이미 벨럼이라 불리는 저렴한 양피지로 대체되기 시작했지만 12세기경까지는 책이나 공문서를 만들기 위해 간간히 쓰였다.

양피지 사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싼 파피루스 사본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아마도 초기에 신약 성경은 이런 종이 위에 필사되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발견한 파피루스 조각 사본들은 1, 2, 3, 4, 5, 6, 7 등의 번호가 매겨졌으며 그 안에는 신약 성경의 서로 다른 부분들이 적혀 있었다. 이런 파피루스 사본 중 많은 수가 교회 역사의 첫 3세기(주후 100-300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벨럼(Vellum): 글이 기록된 고급 가죽(양피지). 벨럼은 주로 양·염소·송아지 등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여 만든 서사(書寫) 재료이다. 다음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BC 2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도시 페르가몬(지금의 터키 베르가마)에서 양피지가 발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짐승의 가죽이 필기 재료로 쓰인 것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지만 가죽을 좀 더 철저하게 세척하고 늘리고 문지르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필사지의 양면 사용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두루마리 사본이 철을 한 책자(코덱스)로 대체되었다. 처음에는 송아지나 새끼 염소의 가죽 또는 사산되었거나 갓 태어난 송아지나 양의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를 벨럼이라고 하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말은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최고급 양피지를 일컫는 데 쓰이게 되었다.

AD 6세기에 대부분의 초기 사본들에 사용되었던 벨럼은 질이 좋았다. 이후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양의 불량품이 시장에 나왔으나 서유럽에서 많은 필사본이 만들어졌던 12세기까지는 부드럽고 유연한 벨럼이 유행하였다. 초기에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진한 자줏빛 염색을 하고 금·은으로 글씨를 새긴 호화스러운 형태의 양피지가 만들어졌는데 제롬은 그의 잘 알려진 시구에서 이러한 관행을 쓸모없는 사치라 비난했다. 자줏빛 염색은 그 후에 사라졌지만 금·은 그리고 다른 색조로 양피지 사본에 ‘윤을 내는’ 관행은 중세에도 크게 유행하였다. 오늘날 양피지 혹은 벨럼이라는 용어는 주로 목재 펄프 및 제지용 님마로 제조하여 특수한 마감 처리를 한 일종의 고급 종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벨럼 중 어떤 것들은 족자처럼 말할 수 있었으므로 ‘두루마리’(scroll)라고 불리며 또 어떤 것은 마치 책처럼 장(pag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덱스’(codex)라고 불린다. 성경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두 개의 ‘코덱스’는 ‘바티칸 코덱스’(Vaticanus)와 ‘시내 코덱스’(Sinaiticus)이다. 이들은 보통 ‘바티칸 사본’(B 사본) 그리고 ‘시내 사본’ 혹은 ‘알레프 사본’(Aleph)이라 불리는데 여기서 ‘알레프’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다.

● 자필 원본(Autographs): 글자나 음표 등을 작가가 직접 손으로 쓴 원고. 다음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영어의 'autograph'는 사람이 손으로 쓴 서명을 가리키기도 한다. 골동품으로서 지니는 가치나 부수적인 가치 이외에도 자필 원고는 원고의 초기 초안이거나 또는 수정본일 수 있고 작성 단계상 귀중한 증거나 작품의 마지막 수정판의 귀중한 증거를 제공한다.

본서는 성경을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필 원본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원본'을 가리키며 이것들은 다 소실되어 현재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 사본(Manuscripts): 이것은 성경의 구절이나 일부분을 담고 있는 기록으로 파피루스나 벨럼에 기록된 문서이다. 신약 성경 사본이든 구약 성경 사본이든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은 없으며 대부분의 사본들은 그중 일부분만을 담고 있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단지 몇 구절만 담고 있다.

- 사본들의 계열(Families of manuscripts): 현재 네 종류의 사본 계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독일어 루터의 성경 등은 '시리아 계열'(Syrian family) 사본에서 번역되었으며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신미국표준역(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ASV*), 개역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SV*), 우리말 개역성경,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등은 모두 '알렉산드리아 계열'(Alexandrian family) 혹은 '이집트 계열'(Egyptian family) 사본에서 번역되었다. 또 다른 계열로는 '구 라틴어 사본들'을 포함하는 '서방 계열'(Western family)과 '카이사르 계열'(Caesarian family)이 있다. 그런데 사실 마지막 계열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해 주는 사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1924년에 스트리트(B. H. Streetr)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서 킹제임스 성경의 사본학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계열이다.

- 본문(Texts): 이것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필사본 자료를 모아 구성한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의미한다. '본문'이라는 단어는 어떤 종류의 문서든지 그 문서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지칭하며 '그리스어 본문'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그리스어로 편집한 신약 성경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본문을 만든 유명한 사람들로는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 엘제비어, 베자, 밀, 펠, 왈톤, 트레겔레스, 티센도르프, 그리스바흐, 알포드, 메츠거, 알란드(알라트), 네슬레,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등을 들 수 있다.

신약 성경 본문 중에서 시리아/비잔틴 '다수 사본'에서 나온 본문은 보통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이라 불린다. '공인 본문'은 어떤 공적인 단체가 그 성경을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公認 本文)이 아니고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共認 本文)이다. 따라서 이 같은 '공인 본문'을 '표준 원문'(標準 原文)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표준'으로 만들거나 선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을 따라 알란드, 네슬레 등이 천주교의 이집트 '소수 사본'에서 만든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이 있는데 바로 이런 본문으로부터 부패한 현대 역본들이 번역되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성경 문제는 궁극적으로 시리아/비잔틴/안디옥 본문과 이집트/알렉산드리아 본문 간의 대립이며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킨 프로테스탄트 본문과 로마 카톨릭 본문 간의 대립이다. 영어 성경 중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만이 시리아/비잔틴/안디옥 본문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NIV, NASB, RSV,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역본, 한글개역성경, 한글표준새번역, 한글공동번역 등은 모두 이집트/알렉산드리아 본문에서 나왔으므로 문체와 표현은 다소 다를지 몰라도 잘못된 점들에서는 궁극적으로 같다고 할 수 있다.

- 역본(Versions): 이것은 누군가가 그리스어 본문으로부터 자신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을 의미한다.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시리아어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있었다. 성경은 아주 오래 전에 고딕, 페르시아, 콥틱(에티오피아) 언어 등으로도 번역되었다. '역본'은 사실 '성경 기록'(Scripture)을 '옮겨 놓은 것'(Translation)이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Version'이란 단어는 원래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다시 내는 것'을 의미한다. 개역표준역(RSV)과 미국표준역(ASV) 등은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한 영어 역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ASV와 RSV는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된 '다수 사본'이 아닌 다른 종류의 '소수 사본'으로부터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 킹제임스 성경: 1611년 잉글랜드 왕 제임스 1세의 후원으로 출판된 영역 성경으로 제임스 왕의 이름을 따라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Version)이라고도 하고 모든 사람이 권위를 부여했다고 해서 권위역 성경(Authorized Version)이라고도 하며 국내에서는 중국말의 영향으로 '왕이 친히 제정한 성경'이라는 의미의 흥정역 성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제임스가 승인한 54명의 학자들 가운데 47명이 7년 동안 세 곳에서 여섯 개 조로 나뉘어 원어로 된 본문과 과거의 여러 역본들을 사용하여 작업했다. 그 결과 등장한 킹제임스 영역 성경은 영어 문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300년 이상 표준 영어 성경으로 널리 수용되었다.

킹제임스 성경은 사본 상의 권위와 문체의 수려함 등에서 다른 모든 역본을 압도하고 있으며 특히 외적으로 드러난 우수성 몇 가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a) 부흥과 영혼 구원: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선교하고 전도함으로써 구원받게 된 영혼들과 선교 사역의 양은 그 외 다른 어떤 성경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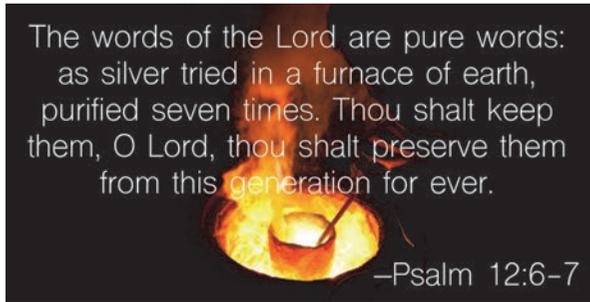
(b) 물질적 번역: 영국, 독일, 미국의 역사는 사람들이 '종교 개혁 본문'을 귀중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적 복의 역사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게 될 때 재난이 닥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c)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한 사람들의 열매: 만일 독자가 이성적이라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지배하에 있는 중남미 국가들과 남유럽, 필리핀 등을 살펴보기 바란다. 이 국가들 모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채를 짊어진 나라들이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지하자원이 많고 땅도 비옥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철학(이교 사상)과 신학(바르지 못한 성경)이 나라를 지배하므로 번영을 이룰 수가 없다.

또한 새로운 역본들의 근거가 된 ‘소수 사본’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한 영혼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그들의 대부분은 - 네슬레, 알란드, 메츠거, 웨스트코트, 호르트, 라이트푸트 등 - 참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증거도 없다. 또한 그들은 이미 1611년부터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세례 등을 통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로마 카톨릭 사상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¹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열매들은 이미 교회 역사가들에 의해 잘 알려져 있으며 카톨릭 교회는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공인 본문’을 올바른 본문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들은 부패된 계통의 제롬의 라틴 별게이트와 이집트 계열의 사본들만을 중요시하고 있다.

- 개정(Revisions): 성경 본문을 바꾸는 것.
- 교정, 정정(Correction): 철자나 맞춤법이 틀린 것을 바로잡는 일로서 ‘개정’과는 전혀 다른 것임.



10)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간한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다릅니다」 등을 참조하기 바람.



추천 참고 도서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작은성경, 신약 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9.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1.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תה תהו ובהו וחשך על
תהום ורוח אלהים קנחה

히브리어 구약성경

거룩한 사람들이 기록함

원래의 기록
(자필원본)

BIBLOS γενέσεως
'Ιησου χριστου, υιου
Δαβιδ, υιου 'Αβραάμ.
'Αβραάμ ἐγέννησεν

그리스어 신약성경

히브리어/그리스어 전통본문
모든 사본 중 가장 신실한 것들

번역본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

번역자들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번역기술
단어 대 단어의
"축자 번역"
"동적 일치 배제"

종교개혁의 정신과
함께 중요 교리와 하
나님의 말씀의 권위
가 완전히 보존됨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들

위클리프 성경	1382
틴대일 성경	1525
커버데일 성경	1535
매튜 성경	1537
그레이트 성경	1539
제네바 성경	1560

1611년 킹제임스 성경
권위역본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위치	개역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걸치레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7~8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 개역개정은 이 구절을 빼고 6절을 둘로 나누어 6절 후반부를 7절에 넣었음.)

개역개정판, 표준새번역, 공동번역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총판 : 생명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검색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킹제임스 흠정역



King James Bible 1611
한영대역 큰글자성경
스터디바이블 작은성경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간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그리스어 공인본문)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웨슬리·스필전·무디·로이드존스 등 권능의 사역자들이 사용한, 유일한 복음의 도구였습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하여 '(없음)'으로 표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 루시퍼·갈보리 등의 단어들이 살아 있으며 천국·지옥·삼위일체 등의 교리가 명확합니다.
- 우리말 어법에 충실하게 옮겨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그대로 유지되어 감동이 살아 있습니다.
- 정확한 용어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시켰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이 반영되어 원어와 영어의 감동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10년 전 처음 출간된 흠정역 성경은 이미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독원 www.KeepBible.com